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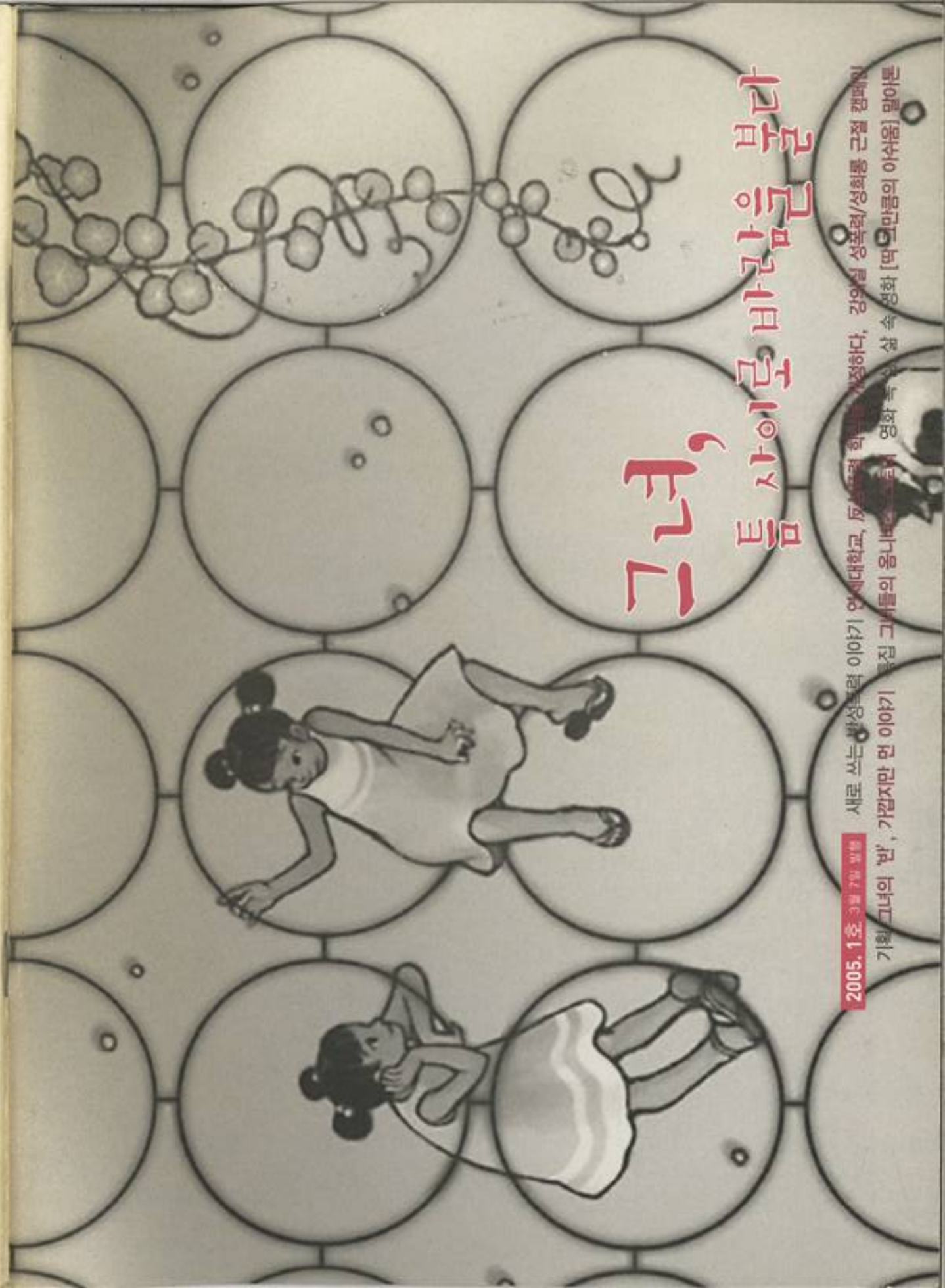
내 안에 차오르는 여성주의 물결 **움·펼·틈**
연세대학교 제 17대 총여학생회

fenergyup@yonsei.ac.kr / www.yonsei.ac.kr/~ysfem

그녀, 틈 사이로 바람을 본다

2005. 1호 3월 7일 발행

세로 쓰는 상상력 이야기 연세대학교,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한다. 강와실 성폭력/성희롱 근절 캠페인 기획 그녀의 밤, 가깝지만 먼 이야기 특집 그녀들의 옹니에 대해 영화 속 삼 속 영화 [딱그만큼의 아쉬움] 말아톤





2005.01

C O N T E N T S

- 02 새로 쓰는 反성폭력 이야기 1
연세대학교 反성폭력 학칙을 개정하다
- 06 기획 | 그녀의 '반', 가깝지만 먼 이야기
여는 글 • 06
episode 1 • 08
episode 2 • 10
episode 3 • 12
에피소드를 정리하며... • 14
단지 그녀가 선배라는 이유만으로 • 16
- 19 광고1 페미니리
- 20 특집 | 그녀들의 옴니버스 스토리
여는 글 • 20
'난 내가 뭘든 상관없어' • 22
운동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 24
여성주의를 만나다 • 26
워치짓기, 관계맺기, 긍정하기 - 대학 생활에서의 단상들 • 27
- 28 새로 쓰는 反성폭력 이야기 2
강의실 성폭력/성희롱 근절 캠페인
- 29 광고2 여성학교
- 30 여성주의 덕보기 페미니즘과 만나고 나서
- 32 즐거운 여자들의 산책
길 위에서 만난 '그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에 여성 여행자들을 초대하는 옥임씨
- 34 관계읽기 / 만나기 첫 만남
- 36 영화속 삶, 실속 영화 [딱 그 만큼의 아쉬움] 알아본
- 39 광고3 여자만의 방
- 40 본지의 생각과 전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놀,
맘대로 와작와작 미디어 씹기
Welcome to this page
- 42 여성주의로 만화읽기 우리가 자매애를 생각하는 이유 (NANA)
- 44 여성학 서평 우리들의 오밀리마
- 46 어느 여성주의자의 좌충우돌 서바이벌 가이드
Ch1 여성주의자로 살아남는 법 - 준거집단을 만들자
- 48 광고4 여성주의 동아리



새로 쓰는
反성폭력
이야기 1

연세대학교
反성폭력 학칙을
개정하다

강의실 성폭력/
성희롱 근절 캠페인

2004년 11월 25일, 연세대학교 反성폭력 학칙이 개정되었다. 원래 규정이나 법률은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개정되기 마련인 것인데, 제정도 아닌 개정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나 할지도 모르겠다. 99년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교육부 시행세칙으로 각 학교에 反성폭력 학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침이 내려왔고, 여기에 발맞추어 연세대학교에도 反성폭력 학칙이 제정되었다는 것은 이제 모두들 한 번쯤 귀에 스치기라도 했을 법한 말이다. 교육부의 시행세칙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성폭력에 대한 넓은 개념을 적용하고 성폭력 사건의 처리뿐 아니라 예방에 대한 내용을 함께 규정하는 현재의 학칙은 참여학생회를 비롯한 여성자치단체들이 꾸준히 벌여왔던 反성폭력 학칙 제정운동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학칙의 제정은 反성폭력 운동의 또 다른 시작이었다. 꾸준한 反성폭력 운동에도 불구하고 학칙 제정 당시 학내에는 성폭력이라는 개념에 대한 인식조차 거의 없었고,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길고 힘겨운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러한 학내 상황에 비추어볼 때, 학교 측이 제정한 학칙이 담보해줄 수 있는 것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그리고 그 예측은 정확히 맞아 떨어졌다. 가장 심각했던 것은, 성폭력 사건 처리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의 대부분은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규정에 충실하려는 집행 의지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었다는 것이다. 학칙에 사건처리기구로 명시된 대책위원회는 위원들의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제대로 열리지 않았고, 열린다 해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게다가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모인 대책위에서 성폭력에 대한 가해자중심적인 시각을 그대로 재생산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또한 학칙에는 피해자 보호에 대한 내용이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가해자 징계에 대해서도 다양한 조치 방향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은 학칙에 따른 사건 해결에 대한 기대를 갖지 못할뿐더러 신고 후 기본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채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런 상황을 학내에 알려내고, 설득하고, 지지서명을 받고, 학생 측 개정안에 따른 개정을 이끌어내는 것은 무척이나 치열한 과정이었다. 사건 처리에조차 적극적이지

연세대학교,
反성폭력 학칙을 개정하다



않은 대책위에서 학칙 개정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았고, 학내에서도 反성폭력 학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탓에 학생들의 힘을 모으는데 어려운 점이 많았다. 또한 反성폭력 학칙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내면서 학생 측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은, 성폭력에 대한 기존의 가부장적 언어를 거부하고 여성의 경험을 표현하는 피해자중심적인 언어를 만들어나가는 험난한 과정이기도 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노력 끝에 개정된 反성폭력 학칙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그 의의를 짚어보려 한다. 학칙을 인용하는 경우 개정된 부분을 굵게 표시하였으며, 〈연세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은 '규정'으로, 〈연세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은 '시행세칙'으로 줄여서 표기하였다.

1. 학칙의 적용범위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자에게 적용되며, 이는 교수(시간강사 포함), 직원, 학생, 학교의 통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제3자가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폭력을 포함한다.

- 기존의 학칙에는 '학교 통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제3자'가 적용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교환학생, 임시직원, 외부 초청 교수, 교내 입주기관 근무자 등 다양한 위치의 학내 구성원들을 포괄할 수 없었다. 학칙이 개정되기 전에는 교수, 직원, 학생 외의 구성원이 가해자나 피해자인 경우 학칙 적용 대상의 범위에 대한 논의 때문에 사건 자체는 아예 처리 과정을 밟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2. 피해자 보호

규정 제5조 (피해자보호 및 비밀유지의무)

③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규정 제12조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예방과 대책수립

2. 성폭력 사건의 조사·중재

3. 피해자보호

4. 가해자의 징계 또는 발의

5.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 피해자 보호는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반복해서 떠올려야 하며, 가해자와 같은 학내 공간 안에서 생활하고 있을 경우 가해자와 계속해서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소속한 공동체나 사건 처리에 개입한 사람들로부터 2차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피해자가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대책위의 업무에도 피해자보호 조항이 추가되었다.

3. 사건처리 과정

규정 제15조 (심의·의결)

④ 상담실장은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 이견에 사건당사자 간의 합의를 중재하여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 성폭력대책위원회는 교수 및 학생위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 학기에 한 번씩 정기회의가 열린다. 사건이 대책위에 정식으로 신고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지만, 교수위원의 강의 일정과 외부 일정을 모두 고려하여 대책위원회를 소집하려면 최소 2주에서 1개월 정도가 걸린다. 가해자에게 학제와 관련된 징계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대책위를 통한 공식적인 신고 절차가 필요하지만, 실명·비실명 공개사과와 가해자교육 등의 조치는 상담실의 비공식적인 절차로도 가능하다. 따라서 모든 사건을 대책위에서 논의하게 되면 피해자가 비공식적인 절차를 원하는 경우 불필요한 시간 소모가 많아지게 된다. 개정된 학칙에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교내 성폭력상담실의 독립적인 사건 처리가 가능함을 명시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상담실에서는 비공식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간

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으며, 사건의 처리 과정을 기록, 보존하게 된다.

시행세칙 제12조 (성폭력사건의 심의·의결)

② 심의시 피해자와 피신고인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피해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피신고인이 사건 조사 및 처리에 필요한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심의한다.

-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학칙 개정 이전에는 가해자가 조사에 불응할 경우 이에 대한 강제력을 발휘하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가해자가 학교를 떠나거나 대책위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사건을 무마시켜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개정된 학칙에는 가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을 가지고 사건을 심의하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의결할 수 있게 했다.

4. 가해자 징계 및 조치

규정 제16조 (징계 및 조치)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1. 가해자의 공개 사과
2. 가해자에게 재교육프로그램 이수 명령
3.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일정기간 접근금지
4. 가해자의 사회봉사

③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 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 가중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 학내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생활공간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경험에 대한 고통을 치유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가해자의 접근금지 조치가 필수적이며, 이것은 사건처리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또한 같은 유형의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거나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하는 경우, 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중 징계를 통해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못박을 필요가 있다.

시행세칙 제13조 (징계 및 조치)

② 위원회는 피해자 및 가해자의 사전 동의를 조건으로 가해자의 공개사과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개사과는 연세춘추, 상담실 홈페이지 등에 사과문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피해자의 요청이 있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실명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가해자가 재심의 요청 없이 징계 및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재발위험이 있거나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해자의 동의 없이도 피해자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해자의 신원을 포함한 사건공개물을 할 수 있다.

- 공개 사과는 성폭력 사건의 공식적인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의 행위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기본적인 절차이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이 대부분 피해자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피해자의 피해 내용에 관심을 갖는 가해자중심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학내 성폭력 사건 해결에 있어서 가해자가 자신을 드러내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바꿔나가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가해자가 대책위의 징계 및 조치에 불복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만으로도 가해자의 신원을 포함한 사건 공개가 가능하다. 비실명 사과문을 게재하는 경우는 개정된 학칙의 내용대로 피해자의 요청이 있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5. 2차 가해

시행세칙 제13조

⑤ 성폭력 행위를 방조 또는 동조한 자, 또는 사건 처리과정에서의 2차 가해자에게도 징계 및 조치를

내릴 수 있다.

- 학내 성폭력 사건에서 2차 가해는 매우 빈번하게 일어난다. 피해자나 가해자의 주변인들이 피해자의 피해 경험을 함부로 왜곡, 축소시키거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건을 공개 또는 은폐하는 일이 허다하다. 이러한 2차 가해는 피해자를 위축시키고 성폭력을 용인하는 분위기를 형성하여 성폭력 사건의 재발을 조장한다. 개정된 학칙에서는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2차 가해를 명백한 범죄로 보고 이에 대한 징계 규정을 추가하였다.

6. 예방교육

시행세칙 제6조(성폭력 예방교육)

① 성폭력 예방 교육은 학칙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해당부서에서 실시하며,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학기 1시간 이상 실시한다.

-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의 원활한 처리도 중요하지만, 사건을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은 당연한 일이다. 성폭력은 개인 대 개인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 성폭력을 바라보는 남성중심적인 시각이 구석구석 스며든 사회가 성폭력의 발생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이라는 공간 역시 이런 분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상, '아직 사회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라는 변명을 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학내 구성원들이 스스로 성폭력에 대한 남성중심적인 언어를 바꿔나가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그 노력을 돕는 제도적 차원의 교육이 필요하다.

7. 재심의

제14조(재심의)

① 사건당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건당사자의 재심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0일 이내

에 재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재심의 신청과 재심의 과정은 사건당사자 각 1회에 한한다.

- 재심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된 조항들이 추가되었다. 이는 대책위의 심의 내용이 피해자의 치유라는 사건 해결 목적에 부합하거나 불충분하다고 생각할 때 재심을 요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재심의가 지나치게 길어져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재심의 신청과 재의결이 가능한 기간을 명시하였다.

반성폭력 학칙은 학내에서의 성폭력 예방과 사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것이다. 얼핏 보면 무척이나 명쾌해 보이는 이 두 가지의 목적에는 무수히 많은 의미가 그물처럼 얽혀 들어가 있다. 성폭력을 예방한다는 것은 몇몇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학교 이곳저곳에 물리적인 안전장치를 설치함으로써 가능한 것이 아니다. 학내 구성원 모두가 성별에 따른 권력의 차이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나갈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반성폭력 학칙은 아직도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성폭력 상담실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교수성폭력 관련 특별 조항 등의 채워나갈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부분은 '성폭력'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이며, 성폭력을 설명하는 언어가 오랜 시간 동안 피해자의 위치에 놓여있던 여성의 언어로 재구성되는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될 반성폭력 학칙 개정은,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작업과 언제나 발걸음을 같이 해야 한다.

연세대학교

그녀의 '반' 가깝지만 먼 이야기

기획

여는글

그녀의 '반'

가깝지만

먼 이야기



새내기들에게 얼핏 반은 그다지 낯설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3월 한 달을 넘기면 서 반이 이전에 겪어온 공동체와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강제도 없고 목적도 없는 공동체.

반은 새내기들이 처음 접하는 대학문화다. 올해도 여전히, 반이 아니고선 달리 발 디딜 곳을 생각하기 힘든 다수의 새내기들은 반이 제공하는 대학문화와 자신을 맞추려 노력할 것이고, 반 문화와 자신 사이에서 불협화음을 느낀 또 다수의 새내기들은 동아리와 반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것이다.

처음 접한 FM과 응원과 게임 속에서 어떠한 새내기들은 즐겁게 이것을 즐기기도 할 것이고 어떠한 새내기들은 불편함을 느끼면서 자리를 맴돌고 있을 것이다.

여학생들이 새내기로서 반에서 겪었던 다양한 경험들에 대한 에피소드 세 가지로 먼저 이야기를 풀어내려고 한다. 다양한 여성의 숫자만큼이나 그녀들이 겪은 경험은 다양하기 때문에 세 가지로서만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이 조금 두렵기도 하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반에서 여학생들이 겪었던 불편함, 그것은 사실 그녀들에게 내재한 문제가 아니다. 반이라는 공간이 갖고 있었던 남성 시선에 의한 기준, 그것이 그녀들을 규정하는 잣대가 되었을 뿐.

그리고, 때문에, 여학생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에의 제시도 함께 하고자 한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자.



Episode I

그녀의 '반', 가깝지만 먼 이야기

●●
특별한 것이 없는 여자아이는 공동체의 변두리가 가장 어울리는 자리다.

난 갖고 있는 것이 없다. 난 예쁜 얼굴도 없고, 잘난 말주변이나 유머도 갖고 있지 않고, 리더십이나 원만한 성격 같은 건 더욱 없고 원만치 못한 성격 때문에 맘 맞는 친구 하나 가져본 적이 없다. 하지만 난 중심에 자리 잡고 싶었다. 어디든 애기가 되어서는 그런 여자아이가 되고 싶다. 나의 조건과 나의 욕망은 이만큼이나 거리가 멀다.

그래도 난, 내가 갖지 못한 그 특별함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도 하다. TV에 보이는 그녀들처럼, 뚱뚱하고 못생긴 여자는 그녀에게만 기대되는 그만큼을 채우면 되는 거다.

대학 와서 처음 발을 디밀고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는 그 공간에서 나는 '그녀'를 연기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녀는 그들이 요구하는 여성성을 상실한, 그녀다. 술은 잘도 받아먹어서 남자아이에게 호감미 요청을 받기도 하고, MT에선 절대 잠들지 않는다. FM 요구에선 절대 뒤로 빠지 않고 호탕하게 하고, 깃발을 휘두르는 것을 자칭한다. 게임에서 지면 벌칙도 곧잘 받아들이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춤도 추고 노래를 부른다. 그녀가 펑클 노래를 부르면 그대로

업기가 된다는 걸 알고 있던 영악한 나는 핑크색 옷으로 중무장을 하고 여기저기서 어색한 소녀타를 내며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었다.

나는 반에서 가장 '예쁜' 친구와 그룹을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는 걸 알았다. 반에서 가장 '예쁜' 친구와 그룹을 만드는 것은 연애상담을 하려울 많은 남자아이들에게 보다 친근한 존재로 다가갈 수 있다는 나의 이기심 때문이다.

난 특별한 것이 없는 여자이지만 어떻게 하면 남자아이들의 공동체의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아는 영악한 여자아이다.

●
보스 게임을 했다. 양면으로 서로를 갈라서 보스를 세운 다음, 피쳐에 가득 든 술을 부하부터 한 모금씩 마셔나간 다음 보스가 마지막으로 마시는 게임이다. 보스는 나와, 그리고 나의 가장 '예쁜' 친구다. 나는 피쳐 절반가량의 술을 마셔야 했고, 그녀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저기, 나도 술을 이 정도까지 마시면 죽을지 모른다고.

그러나 나는 '그녀'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렇지 못하면 나는 곧 반에서 곧 떨어진 연이 되어버릴 것을 알기 때문에, 처음 갖는 대학수업의 자율성의 절반을 방종으로 매우게 됐고 그 시간들은

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던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저 나라는 겉모습으로 포장된 익살꾼이었다.

뚱뚱한 여자 개그맨이 남자아이의 일상에 조그마한 영향조차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나의 존재는 어느새 다른 여자아이를 '쉽사리' 교체되어 있었다. 여성 익살꾼은 굳이 나일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모두 여기저기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나는 언제든지 부르면 어디에나 나갈 수 있는 푼한 여자아이니까, 특별히 나의 귀가시간이라든지 나의 밤길에 대한 안위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렇지만 '예쁜' 친구의 밤길에 대한 남자아이들의 걱정과 나의 밤길에 대한 남자아이들의 무관심 사이의 격차가 점점 벌어져갈 때쯤 나도 조금씩 화가 나기 시작했다. 내가 화가 난 것은 보호받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들의 시선은 대체 어떠한 기준으로 무엇을 나누고 있는 거지?

수터분한 여자아이는 아무리 해도 연애에 성공할 수 없지만, 예쁜 여자아이는 매일매일 걸려오는 연애를 차내느라 혼잡이 난다. 나는 죽어라 노력해야만 반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데, '예쁜' 친구는 간간히 반에 나와도 여전히 반의 구성원으로 남아 있다.

'예쁜' 친구에 대한 마음을 나에게 털어 놓아대는 남자아이들의 술 취한 전화가 술을 짜증나기 시작할 무렵, 나는 몹시 아파버렸다.

●
한참을 아프고 반으로 돌아간 나는 문득 하나의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아픈 동안에 어느 누구도 나에게 안부를 묻지 않았던 것. 그리고 그들은 다시 돌

아온 날 그다지 반기지지도 않았다. 여전히 반은 나 없이도 잘 굴러갔고, 난 그토록 싫어했던 변두리의 자리에 존재했던 거다.

너무나도 낯설어졌버린 그 공간에서, 나는 아연하며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난 어디에 있는 거지?’

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던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저 나라는 겉모습으로 포장된 익살꾼이었다. 뚱뚱한 여자 개그맨이 남자아이의 일상에 조그마한 영향조차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나의 존재는 어느새 다른 여자아이를 '쉽사리' 교체되어 있었다. 여성 익살꾼은 굳이 나일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지금은 예쁘장해진 여자선배의 옛날 못생긴 모습을 달았다는 이유, 그 단 하나로 반의 익살꾼으로 발탁된 그녀는 아마 내가 그랬듯 쉽게 소비되고 쉽게 버려질 거다.

깊은 이해한 조각 없이, 그저 필요에 의해 친해졌던 '예쁜' 친구에게겐 새로운 베스트 프렌드가 생겼고 어느새 '예쁜' 친구의 연애 매니지먼트는 내가 아닌 새로운 베스트 프렌드가 담당하고 있었다. 나는 매니지먼트로서의 어떤 의미조차 갖고 있지 않았고 그저 단순히 사물화된 매개물에 불과했다.

●
그러나 그 '예쁜' 친구는 과연 그 위치에서 여전히 행복할까. 내가 소비되고 버려진 방식처럼, 그녀 또한 그렇게 되진 않을까. 여전히 '친구'는 만나지 못하고 '연애 매니지먼트'만을 곁에 두고 있는 '예쁜' 친구가 정말로 행복한 걸까. 그 친구에게 반은 어떠한 공간이었을까.

반은 '나'라는 여학우를 포용할 공간을 안고 있지 않았다.

'나'라는 여학우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가질 만한 공간은 이제 다시 찾아야 한다.

한참 후, 나는 나에게, 대학이란 공간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을 그 때처럼, 다시 처음 그 자리로 돌아와 여전히 같은 질문을 되풀이해야만 했다.

나는 어디에 있는 거지.

그리고 어디에 있어야 하는 거지? **이비**



Episode II

그녀의 '반', 가깝지만 먼 이야기

●●

이른 봄, 약간은 녹눅눅했던 지하의 동아리방, 오디션 보러 온 나를 지켜보던 사람들과 푸른 빛이 돌만큼 하얗게 보이던 벽,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노래를 불렀는지조차 기억이 가물가물한 오디션과, 기다리기를 포기했을 때쯤 받았던 합격 소식을 알리는 음성 메시지. 대학에서 처음으로 내가 선택한 공동체는 지금도 빛바랜 조각이불같이 꿰어낸 장면들로 기억된다. 그 곳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조차 꿰어내야 할 천 조각들처럼 흩어져있었다.

●

즐거운 일들이 많았다. 정기 모임에서도, 행사에서도, 선배들과 개인적으로 밥을 먹는 자리에서도 나는 무척이나 친절할 얼굴들을 만날 수 있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 무슨 수업을 듣는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까지 관심을 갖고 물어봐주는 사람들. 물론 별로 대답하기 즐거운 것들은 아니지만,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사이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건 그런 것들뿐이라는 생각에 그냥 웃으며 대답했던 것 같다. 나도 그런 질문들을 수도 없이 했겠지? 솔직히 잘 기억나진 않는다. 3월 내내, 그리고 4월 중순까지 선배들에게 점심을 얻어먹으면서 나는 그냥 많은 질

문에 대답하고, 많이 웃으면서 지냈다. 그 사람들에게 내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까 고민해보지는 않았다. 내가 FM을 잘 못해도, 술을 잘 못 마셔도, 같이 불러야 하는 노래를 조금씩 틀려도 선배들은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해주었으니까. 술자리 중간에 나와도 항상 남자 선배나 동기가 나를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주었고, 좀 늦은 시간에는 집 앞까지 데려다주기도 했다. 날씨가 좋은 날엔 안부문자가, 비가 오는 날엔 우산을 챙겨 가지고 나왔는지 묻는 문자가 오곤 했다. 내가 좋아하는 요구르트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갈 때에도 항상 같이 가 줄 사람이 있었다. 처음엔 무척 신기했지만, 어느새 익숙해졌다. 대학에서 새내기들은 정말 대단한 존재구나. 이렇게 시간과 돈을 써 가면서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많다니. 우습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난 정말 그렇게 생각했었다.

●

그 곳에 흐르는 공기,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둘러싸고 흐르는 공기를 처음으로 깨달게 된 것은 늦은 봄, 동아리에서 동기들끼리 MT를 갔을 때였다. 한 남자 선배를 짝사랑하는 여자 동기의 이야기를 듣다가 문득 누군가의 입에서 나를 향해 튀어나온 말. '넌 인

내가 노래를 틀려도, 술을 잘 못 마셔도, 사람들은 여전히 나에게 친절했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고 영화를 보러 갈 사람들은 여전히 있었지만, 나는 깨달았다. 내 동기가 말했던 나의 인기란, 언제 한 번 밥이나 먹을 수 있는 초라한 쿠폰 묶음일 뿐이라는 걸.

기 많아서 좋겠다.'

나는 원래 농담을 잘 받아넘기는 재주가 없긴 하지만, 그 말을 웃으며 받아넘길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을까. 인기? 인기가 많다는 건 뭐지?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던 건 아니다. 어쩌면, 나는 그냥 외면하려고 했던 건지도 모른다. 혹시 나를 연애 대상으로 보고 있던 사람들처럼 나도 누군가를 보고 있었다면 무언가 달라졌을까? 그렇게 오고 가는 감정에 내가 적극적으로 발을 내딛으려 했다면, 나는 스스로를 '인기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나는 그런 모습의 나를 쉽게 상상할 수도 없었고, 사람들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었다.

사실, 나는 그저 재미있게 지내고 싶었다. 누군가와 연애를 하면 어딘가에 묶인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을 것만 같았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연애를 하게 되면 내가 노래를 틀렸을 때 유난히 자주 지적을 해주면서 둘만 있는 자리에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는 여자선배의 시선이나, 내가 어떤 남자 선배와 이야기만 하려고 하면 나를 불러내어 음료수를 사러 가자고 하는 여자동기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런 건 그냥 외면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때 내가 외면한 건 그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다.

●

무언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술자리에서 나를 데려다주는 남자 선배들, 수업 시간에 꼭 옆에 앉는 남자 동기, 모두가 왠지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이 사람들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수업에 대한 이야기, TV 이야기, 동아리 모임이나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들, 모두 웃으며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었지만, 글썽. 나는 어느새 그런 웃음이 한없이 지루해져버렸다. 동아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시간에도, 공연을 준비하면서도, 무언가 계속 지루하기만 했다. MT에서 나에게 '인기가 많다'는 말을 던졌던 친구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지만, 알 수 없는 거리감에 말을 건넬 수가 없었다.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해보려고도 했지만 막상 회의 시간이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할 말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 할 거라고 생각한 것도 아니다. 그냥 나는 그런 일에 대해 말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있었다. 그렇게 조각 나 있는 내 모습을 깨달은 뒤에도, 나는 그런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할 수 없었다.

●

나와 무척 가깝게 지내던 한 남자선배가 동아리 안에서 한 여자 선배와 연애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 남자선배는 그 이후로 나에게 전화도, 문자도 없었다. 아주 오랜만에 문득 생각나서 보낸 안부문자의 답문은 무척이나 건조했다. '오랜만이네 언제 한 번 밥이나 먹자' 대학에 들어와서 처음 맞는 봄이 끝나고 방학이 다가올 무렵까지, 몇 명의 남자 선배들이, 그리고 한 명의 남자 동기가 그렇게 건조한 단어의 나열을 통해 만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내가 노래를 틀려도, 술을 잘 못 마셔도, 사람들은 여전히 나에게 친절했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고 영화를 보러 갈 사람들은 여전히 있었지만, 나는 깨달았다. 내 동기가 말했던 나의 인기란, 언제 한 번 밥이나 먹을 수 있는 초라한 쿠폰 묶음일 뿐이라는 걸.

●

나는 문득문득 나의 기억의 단편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씩 펼쳐놓을 수록, 그 안의 내 모습은 점점 더 낯설어졌다.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아끼던 악보들을 들고 마지막으로 동아리방의 문을 닫고 나오던 날, 나는 천천히 나 자신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동아리에서 부르던 노래들이 그리운 순간이 오겠지만, 그래도 나는 조각난 나를 감싸 안을 수 있는 나의 노래를 써 보고 싶었다.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노래는, 아직도 미완성이다.

by. 먼지



Episode III

그녀의 '반', 가깝지만 먼 이야기

●●

입학한 지 벌써 3년이나 흘렀다.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졸업을 바라보는 학년이 되어버린 것이다. 어떤 뚜렷한 목적과 계획 없이 살아온 날들이건만, 그래도 나이를 헛되이 먹지는 않았는지, 분명 내가 변화되었음을 (꼭 집어 말할 수는 없더라도) 느낀다. 그래서 내가 입학할 때의 기억들을 되돌려 보는 데에는 어쩔 수 없이 현재의 나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말이다.

그렇게 들여다본 2002년 3월 한 달은, '반 / 동아리 안에 소속되고 싶어서' 매우 바빴던 시간이었다. 이리저리 기웃거리고 함께 밥을 먹고 술을 마셨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과연 그 공동체는, 그 시간 속의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2005년 3월도 마찬가지로 매우 바쁘고 떠들썩한 것이다. 새내기든 선배든 가릴 것 없이.

하루를 멀다하고 일정이 생기고, 신촌 거리는 수많은 사람들로 붐빌 것이다. 낯발도 보일 테고, 응원 소리도 들릴 테고, 술에 취한 사람도 볼 수 있겠지.

그러한 3월에 대한 기억 속에서 가장 먼저 생생하

게 떠오르는 장면은 행사 후에 가게 되는 뒷풀이 자리이다. 나는 그 자리가 재미없었다. 술을 잘 마시지도 못했고, 술이 좋지도 않았다. 뭐, 사실 술이 그렇게 싫었던 것은 아니다. 술과 안주, 사람들과 오고가는 말들, 술집의 조명과 음악, 그 속에서 나는 조용하고 안전하게 술을 마셨으니까. 정말, 조용하고 안전하게. 가끔 옆에 있는 친구와 어색한 인사를 하고, 별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누는 때를 제외하곤 골짜골짜 술을 잘도 마셨다.

"무슨 동네 살아?" "아, 사투리 쓰는 구나. 지방에서 올라왔으면 특목고 다녔겠네" "아니라구?" "아.. 그렇구나"

정말 별 의미 없는 대화였다. 하지만 그 속에 뼈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깨닫는다. 무슨 동네 사는지, 무슨 학교를 나왔는지가 나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아주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

내가 시끌벅적하고 들떠있는 분위기에서 그렇게 조용하고 안전하게 앉아있었던 것은 혹은 앉아있어야 했던 것은, 내숨을 떨거나 괜히 품을 잡기 위함이 아니었다. 만만치 몇 시간도 채 되지 않은 사람들이

나는 좀 더 내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그럼으로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자리를 원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내 머릿속에 오만가지 생각들로 꽉 차 있었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안전하고 조용히 앉아있었다는 사실이다.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느낌도, 해야 한다는 의무도

별로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르르 모여서 간단히 자기소개를 돌아가며 한 다음, "와, 우리 이렇게 만났는데 전배나 하자" "이제 술도 들어갔고, 분위기 더 띄워 볼 겸, 응원이나 할까" "심심한데 게임 한 판 어때?"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뒷풀이 자리가 썩이나 당황스러웠고, 원샷이나 응원, 게임을 하기 싫은 내 느낌에 대해 얘기해볼 수 있거조차 힘들었다.

이런 것들을 왜 하는 걸까. 특히 길거리에서 큰 소리와 현란한 몸동작으로 응원하는 것은 공동체나 개인들의 '과격'함을 과시하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학에 들어왔으니 자유를 만끽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순간적인 일탈을 느낄 수 있는 응원을 택했을 뿐이었다. 더구나 '여고생'으로서의 조심함을 강요받으면서 자랐던 나에게 그런 일련의 것들은 모두 '강요'로서 다가왔다.

물론, 그런 것들이 어색한 사람들이 모인자리에서 할 수 있는 손쉽고 시간을 빨리 보낼 수 있는 방법인 것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웃고 떠들고 난 후

에 밀려오는 허무함은 건디기가 힘들었다. 나는 좀 더 내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그럼으로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자리를 원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내 머릿속에 오만가지 생각들로 꽉 차 있었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안전하고 조용히 앉아있었다는 사실이다.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느낌도, 해야 한다는 의무도 별로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

이런 자리가 몇 번 있는 후에 내가 깨달은 것은, 이런 뒷풀이 자체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물론, 나에게 친한 척을 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어깨에 손을 톡톡 걸치는 남자애들도 싫었고, 과격한 응원도 싫었지만, 가장 치명적인 것은 그런 뒷풀이 자리만이 나의 선택지였다는 것이다. 그것은 곧,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 중에서 '수줍고 말없는, 분위기를 잘 타지 못하는, 이리저리 보잘 것 없는' 모습으로만 나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렇게 나와 어울리지 않는 반은, 나를 포용해줄 만큼 너그럽지 않았다.

물론, 남자아이들 중에서도 나와 비슷한 성격이나 취향을 가진 사람은 존재했다. 하지만 남자선배들이 많은 곳에서 그들은 '사나이들만의 세계'에 포섭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았고 실제로 그랬다. 반면, 내가 그곳에 살아남으려면, 썩썩하고 말 잘하는 털털한 여자아이였거나 수려한 외모와 자태로 인해 어딜 가든 인기 있는 여자아이였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고, 그럴 수도 없었다. 이러한 나의 모습 그대로 나를 바라봐 줄 여자선배들은 참으로 만나기가 어려웠다.

또한 나 외에도, 그 시절 소심하게 '보였던' 여학생들은 그렇게 점점 사라져갔을 것이다.

●

그곳에서,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다양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는 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다. 나는, 그냥 조용하고 잘 웃는 소심한 여자아이의 모습으로 거기 어딘가에 남겨져 있을 것이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 기억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공동체에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것을 탓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내 새내기 시절의 봄은 지나갔다.



by. 고래



에피소드를 정리하며...

- 반에서 언니들과 여성주의로 놀기

●●

각 반 회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여성 대표자를 찾아보기가 참 힘들다. 아, 부회장은 간혹 있지, 회장이 남성인 한에서. 그게 왜일까... 생각해 보면 과반 학생회의 참 많은 일정이 지나간다. 새내기 환영회, 오티, 새터, 개강파티, 대동제, 아카라카, 종강파티, 농활, 다시 개강파티, 고연전... 이 모든 행사들에 술과 응원이 따라오므로 다소 거친 방식의 분위기를 띄우고 미연의 사태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힘 있는' 대장이 필요할 것도 같다. 이러한 풍토 속에서 여성들은 꼼꼼한 사무, 갖가지 감정노동(연애상담, 싸움의 중재, 빠진 아이 달래기 등등)을 전담하며 남성들을 보조하는 것이 보통이다. 반 내에서 '형'으로 통하는 여성을 역시 위에서 말한 보조적 역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여성은 발달하거나, 발달함을 가장하거나, 예쁘거나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골라잡으면서 반으로 녹아 들어간다.

집단적인 재미를 위해 '소심한' 누군가에게 암묵적, 혹은 노골적으로 주류의 놀이문화를 강제하는 행태를 많이 보아 왔다. 소심한 사람들은 반 가장자리에 한 권의 침묵석을 배정받는다. 또한, FM의 예로틱 버전인 AM을 비롯하여 여성의 성은 놀이 문화의 한 코드이다. 이처럼 획일적이며 남성 중심적인 놀이문화가 공동체의 핵심에 서 있는 지금, 뭔가 다른 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공동체를 성찰하고 재구성하자.

놀이 문화를 비롯해서 호칭과 존대말에 담긴 연명별 위계질서, 여성의 역할 및 주체적인 정체성 형성을 방해하는 성별 위계질서, 그 일상적인 성폭력들. 혹시 우리는 이러한 억압을 이용함으로써 '재미 있게' 공동체를 꾸려오지 않았는가. 과반학생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어울려 노는 것에 불과하다면 굳이 학생회를 고집할 필요 없이 응원단과 아카라카 편성조만 있으면 된다. 그러나 우리는 과반학생회를 통해, 사적인 친밀함은 물론, 개인의 역량으로 미처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모순에 대응할 힘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공동체의 구조적인 힘도 획득할 수 있다. 과반학생회는 학우들의 각종 문제점들을 수렴하고 그 속에서 공통성과 특수성을 발견하여 집단적으로 이에 대응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구이자 이것을 전 사회적인 의제로 확산시키는 일상적인 정치의 공간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 성별·연명별 권력 관계로 꽉 짜여져 있는 반문화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이들이 무엇을 이야기 할 수 있겠는가. 모두의 욕구가 충족되는 공동체란 불가능한 것이다. 긍정적인 변화를 외면하고 끊임없이 가부장적, 자본주의적 억압들을 재생산 하지 않으려면, 지금의 공동체는 여자저차한 불편함을 무시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자신들의 욕구를 이야기할 수 있고 공동체 구성원에게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기존



의 통념과 관행에 억눌려 있는 자들이 화성기를 켤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현재의 과반공동체가 가진 배타적 문화를 해체시키길 원한다. 보면 혹은 당위로 인식되어 있는 여타의 억압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를 능동적으로 거부하려는 자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이들에게 강제된 통념을 깨 나가는 일상의 공간으로서 과반공동체가 구상되길 바란다.

새로운 공동체를 위해서 다양한 정치적 올바름이 요구될 것이다. 먼저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공동체를 성찰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여성이 성적으로 대상화되는 놀이문화를 거부하는 것은 고정화된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시작되며 성별에 의한 차별 없이 각 개인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도는 여성에 대한 왜곡된 모든 시각을 바로 잡으며 성폭력을 방지함으로써 여성들이 자유롭게 공동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언니들과 여자친구들의 네트워크.

많은 새내기들이 앞의 에피소드 1, 2, 3에서 본 여성의 모습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진 않은지 걱정스럽다. 그들은 모두 여성에게 너무나 제한적인 선택지에 회의했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길 원했고,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간절히 찾고 있

었다. 이제 홀로 고민하는 여자친구들에게 대학생들을 먼저 경험한 여자 선배들이 새내기 여자친구들에게 힘이 되어 주었으면 한다. 반성폭력 내규에 대해서 사전 교육 한 두 번 했다고 해서 어떻게 20년 넘게 주입된 가부장성이 변화되고 어떻게 사건 사고가 100% 예방될 수 있겠는가. 이럴 때 나이와 학년, 성별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여자친구들이 자신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반 전체의 고민으로 확산되려면 '언니'들의 고민과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게임과 응원에 열광하기보다 새내기 여자친구들에게 자신이 공동체에서 여성으로 지내는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고 피드백하며 반성폭력 내규가 오티와 새터에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선 언니들의 몫이다. 새내기 여자친구들에게 자신의 감수성을 그저 그런 예민함으로 치부하지 않을 언니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리고 장차 그 친구도 다음의 새내기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면 과반 공동체는 점진적인 변화의 흐름을 타게 된다. 실제로 여자친구들과 경험을 나누기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다. 여자친구들의 커뮤니티 '여자만의 방'에서 소곤 소곤 소통하는 것도 좋고,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반방에서 만나는 여자친구들과 대화를 매우 소중히 하고, 이러한 의견을 수렴해 주는 여성주체를 세우는 등의 구조적인 시도도 가능하다. 단대 별로 언니들과 새내기 여자친구들이 만나는 여학생 환영회를 꾸리기도 하고 단대 별 특성에 맞게 여학생들의 입장을 만들어가려는 모임을 만들기도 한다. 여성학 학교와 문화제에서 만나는 여자친구들과 깊이 교감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 속에서 주고받는 여성주의의 힘이 공동체를 재구성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되길 바란다.

고연전으로 대표되는 학벌 문제, 학사 행정과 등록금 등의 교육문제는 물론이고, 소수자들의 정치에 열려 있어야 하는 과반 공동체에서 어째 여성주의만이 만병통치약일 수 있겠는가. 그러나 여성주의는 성별 위계질서를 통해 여성에게 가해진 다양한 통제를 발견해 내는 예리함과 소외에 저항하는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여성'은 자신에게 강제되어왔던 장구한 억압의 역사를 성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을 다양한 소수자들의 정치와 결합시킬 수 있다. 감히 수많은 문제에 대해 매뉴얼화된 해답을 내릴 수 없지만, 과반 공동체 내에서도 여성주의적 성찰이 성적 소수자 및 장애인 문제, 그리고 미처 인지하지 못한 소수자들의 현실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건강한 문제제기를 해 나갈 수 있는 소중한 시작이 되리라 믿고 있다. **문지**

by_ 할



단지 그대가 선배라는 이유만으로

●●
안녕하세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저는 05학번 새내기입니다."

"오, 새내기구나. 말 낚도 되지? 만나서 반갑다."

대학 입학과 동시에, 혹은 굳이 입학 때가 아니라도 수업이나 여러 모임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선배들과의 대화는 대부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 언제부터 그렇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대학 문화' 같기도 하다. 선배가 후배에게 존댓말을 쓰면 주위 사람들(후배를 포함한)이 불편해하기도 한다. 후배가 '감히' 선배에게 반말을 하는 것은 서로 나이가 같거나 정말 정말 정말 친한 사이거나 하지 않으면 생각하기 어렵다. 여차해서는 매너 없고 뭘 모르는 사람으로 보일 여지도 다분하다.¹⁾

나와 학번, 그 뻔한 이야기 속으로
반말과 존댓말은 단순히 말하는 방식만이 다른 것

이 아니다. 존댓말을 쓰는 것은 그만큼 상대에게 공경과 존중을 표하는 것이다. 반말은 친근하게 느껴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존댓말을 쓰고 있다면 이 때 내가 쓰는 반말은 상당히 대의 의미가 강하다. 그래서 존댓말을 들으며 반말을 하는 것은, 상대방에 비해 좀 더 우위에 있다는 일상적인 권위의 상징이 된다. 수많은 가게에서 고객 '님'께 존댓말을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반면에, 고객 '님'이 점원에게 존댓말을 써야하는 것은 아니다. 고객 '님'은 구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가게 내에서 막강한 권위를 가지기 때문이다. 각종 영화/만화/TV프로그램에서 부부가 등장하면 남자는 반말을 쓰고 여자는 존댓말을 쓰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일상적으로 스며있는 성별 권력 관계를 잘 드러내주는 현상이다. 신분 제도에 기반을 두어 신하/천민은 존댓말을 쓰고, 왕/양반은 반말을 썼던 것만 봐도 반말-존댓말은 권위의 표현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선후배사이의 반말-존댓말 문화도 결코 이런 권력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선배들은 나이가 많

후배들이 선배들에게 존댓말을 쓰는 것은, 선배를 존중해서가 아니라 단지 나이가 많고 학번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존중받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은 선배들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따라서 그 권위에 어울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존중할 가치는 가차 없이 사라지게 된다. 선배 또한 끊임없이 '존중받는 듯 한 경험'을 위해 피곤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거나 학번이 높다는 이유로 권위를 획득하고, 이를 언어로 표현해주기를 바란다. '감히 선배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다니', '선배의 권위가 살지 않아서 큰 일이다', 혹은 '학번은 짱때다'와 같은 말을 학교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공공연하게 '그래도 후배들 챙겨주겠다고 새터에 온 것인데 선배한테 왜 이런 식으로 대하느냐', '반 대표로 내가 대신 가면 학번이 제일 높으니까 말하는 것도 수월할거야'와 같은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이런 일상에서는 선배가 잘못된 언행을 했을 때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뿐더러 기본적인 소통 과정마저 생략되는 시스템(선배→후배의 의사 전달만 전적으로 가능)까지 마련된다. 언젠가, 오티 기간에 하는 포인팅게임을 준비하면서 항상 문제제기가 되어 왔던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이 있었다.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자제하자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막상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던 고학번 선배들이 포인팅게임을 하는 당시에 딱 나타나서 그런 걸 시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 모두들 걱정하기 시작했다. 현실적으로 몇 학번이나 차이 나는 선배에게 '그건 부당하니까 시키시면 안돼요' 하고 말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다. 결국 선배들이 부디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 날의 이야기를 접었다. 또 전에 어떤 선배와 의견 충돌이 있었을 때, 나 스스로 그 선배가 가지고 있는 나이권력과 학번권력에 지레 놀려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던 서러운 기억이 난다.

선배로서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선배들 스스로 체적질을 가하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다. 적당히 권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왜 선배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며 사람들의 지탄을 받기 때문이다. 후배들과 평등한 관계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선배 또한 '내가 그러는 건 좋지만 너 때문에 우리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좀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기 일쑤다. 후배들이 선배들에게 존댓말을 쓰는 것은, 선배를 존중해서가 아니라 단지 나이가 많고 학번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존중받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은 선배들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따라서 그 권위에 어울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존중할 가치는 가차 없이 사라지게 된다. 선배 또한 끊임없이 '존중받는 듯 한 경험'을 위해 피곤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가끔 이렇게 대학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나이권력/학번권력은 성별 권력관계와 부딪치기도 한다. 권력체계가 '잘 서있는' 공동체의 경우, 남자후배들은 남자선배들의 말이라면 껌뻑하고 마치 군대에서 선임 대하듯 한다²⁾. 하지만 그날들이 여자선배와 마주쳤을 때는 뭔가 어려움(여기서 어려움이란 그 여자선배를 '군대에서 선임 대하듯' 하며 그 말에 '절대복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을 느낀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성별 권력관계에 위배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경우 친근함을 내세워 '만만하게 대한다'. 여자선배들이 뭐라고 할 경우, '예이 형-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요-'라며 웃고 넘어가거나 밥을 사달라고 할 때 식권 말겨놓은 듯 행동하거나 '아직 선배는 어려서 뭘 모르나 본데-'와 같은 말도 서슴지 않는 등 말이다. 남자선배들을 대하던 태도와는 다르게, 마치 모든 나이권력/학번권력을 초월한 듯 행동하는 것이다. 만만히 보는 태도-그것도 유독 여자선배에게만-는 결코 평등한 관계를 이루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없다. 그저 일상에서 얻을 수 있는 남성의 기득권을 애써 이어오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나이권력/학번권력이 성별 권력관계와 부딪치기는커녕 완벽하게 만나는 경우에는 아예 아찔해진다. 즉, 남자선배는 여자후배와의 관계에서 이중의 권력을 얻는다. 학내 여러 공간에서 선배로 남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남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권력의 이중 고리는 쉽게 접할 수 있다. 한 가지

1) 사실 이런 행위를 고쳐잡고 있는 나조차 완전히 그러한 생각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작년 처음으로 후배들을 맞이할 때 생각이 많은 탓에 더군 반말을 했었노라 이 자리를 빌어 후배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하는 바이다.

2) 무라카미에서 군대만큼 계급이 확실하게 서 있는 시스템은 찾기 어렵다.

후선배간의 권력 구도는
너무나도 정상화되어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변화를 주기가 어려웠다.
그저 후배들은 존중받지 못한 경험을
다음 후배들이 자신들에게 보이는
'존경심'으로 위로받았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이권력/학번권력이 답습되는 것이다.



권력구도를 해체하기도 힘든데 두 가지 권력구도가
만나버리다니, 맘소사.

안녕하세요, 후배님?

후선배간의 권력 구도는 너무나도 정상화되어있
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변화를 주기가 어려웠다.
그저 후배들은 존중받지 못한 경험을 다음 후배들이
자신들에게 보이는 '존경심'으로 위로받았다. 꼬리
에 꼬리를 물고 나이권력/학번권력이 답습되는 것
이다. 일단 선후배간에 평등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평등한 관계가 이어질 텐데 말
이다.

후선배간에 서로 존댓말만 쓰든지 반말만 쓰게 된
다면 일단 언어상으로는 권력 관계를 느끼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의 의식을 상당 부분 반영하는 언어가
변화한다면, 권력 관계 또한 변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노력은 일상 속의 성별 권력관계를 해체시키
는 과정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여자후배와 남자
선배의 관계는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풀어내기 어렵
다. 이러한 위치에서는 여타 다른 선후배 관계에서

서로 존댓말/반말을 쓰는 것보다 훨씬 큰 노력이 요
구된다. 보다 평등한 관계를 위해서라면, 나이/학번
권력의 해체와 성별 권력의 타파는 절대 동떨어질
수 없다. 공동체 내에서 여성주의에 관한 꾸준한 성
찰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선배,
안녕? 언니/누나/오빠/형, 안녕?'과 같은 말이 어색
하고 서로 존댓말/반말을 쓰는데 어려움을 준다면
과감하게 그와 같은 호칭을 버릴 수도 있다. 실제로
내가 속해있는 공동체에서는 이름조차 생략하고(이
름을 부를 시에는 그 뒤에 호칭이 붙게 될 수밖에 없
고, 보다 주체적일 수 있는 방법이 별칭을 정하는 것
이기 때문에-이름은 다른 사람이 지어준 것이 아닌
가) 별칭으로 서로를 부르며 다 같이 반말을 사용한
다(어느 정도 친해지기 전까지는 서로 존댓말을 사
용한다). 문득 내가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도 편하게
부르고 있는 사람이 나보다 무려 세 학년이 높은 사
람이라는 걸 깨닫게 될 때, 공동체 외부와 큰 괴리감
을 느낀다. 지금까지 나에게 익숙했던 학내 공간 중
에서 무려 세 학년 위의 선배에게 편하게 말을 놓고
평등한 관계를 가지는 게 가능했던 곳이 없었기 때
문이다. 그래서 이전에는 권력 구도에 대해 문제의
식을 가지기는커녕, 고학번 선배를 대할 때 어려워
하는 게 '예의'인 줄 알았다. 하지만 분명히 나이권
력/학번권력이 없는 공간이 존재했었고, 이 공간에
서 확신을 얻었다.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것이 진정한 존중감의 표현이라는 것을.
누구든 이런 공간 안에서 더 큰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 더 이상 생뚱맞게 나이/학번이나 성별이 나를,
사람들을 묶어매지 않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이 걸
리더라도 그런 공간이 가능하다는 믿음만 가진다면
언젠가는 보다 평등하고 평화로운 대학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by_글**



by_글 별별 소리만 자껴이는 주제에 그게 자신의
운명인 것 같다고 믿는 길잡이 아이 용케 스
러지지도 않는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잡지, 신문, 소설, 전공도서...
모두가 당연하다는 듯이 써나가는 글들이 문득 낯설게 느껴질 때,
나의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을 찾기 어려울 때,
그래서 '여성으로서의 나'를 표현한 책을 만나고 싶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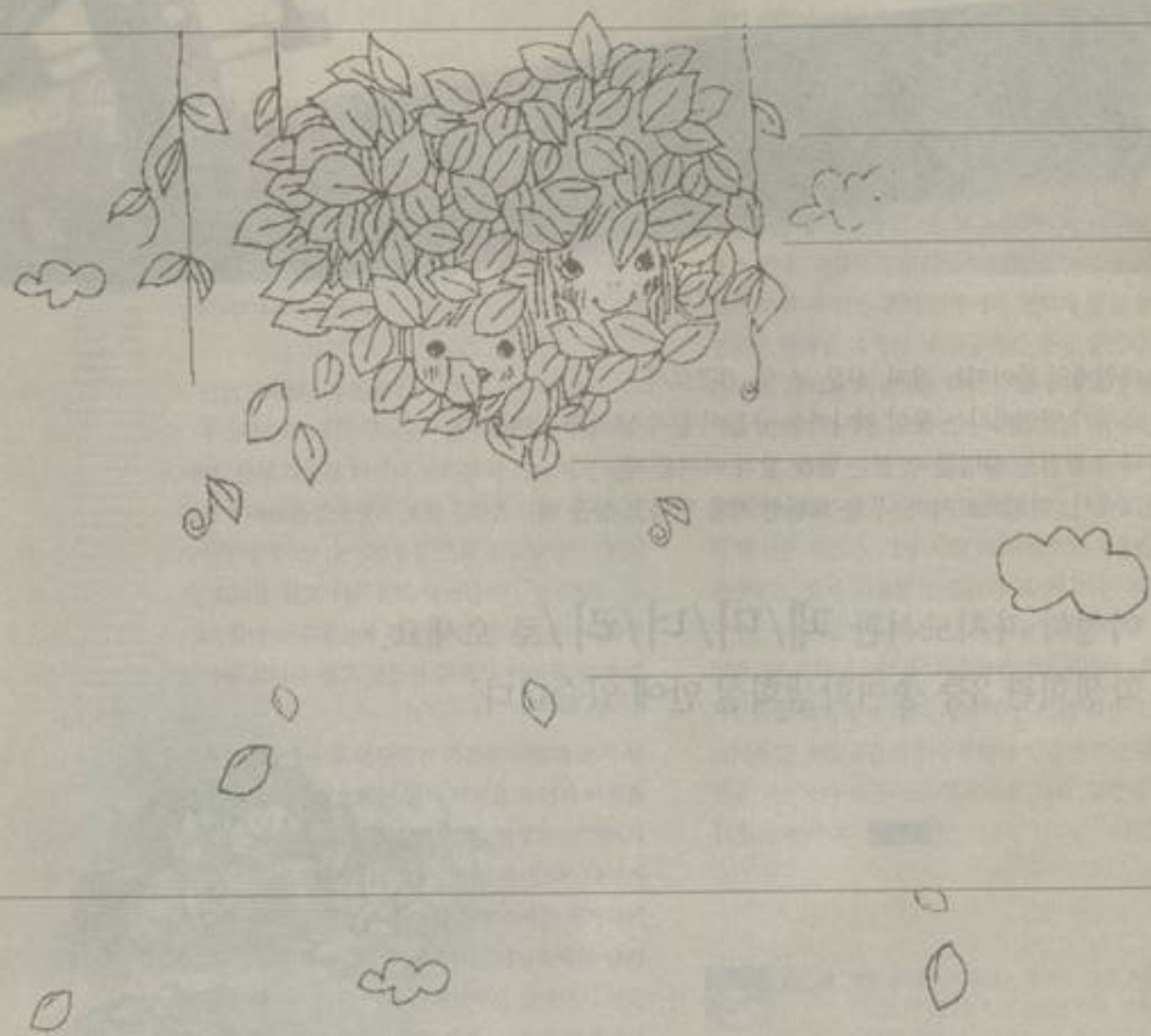
매일매일 쏟아지는 잡지, 신문, 소설, 전공도서...
모두가 당연하다는 듯이 써나가는 글들이 문득 낯설게 느껴질 때,
나의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을 찾기 어려울 때,
그래서 '여성으로서의 나'를 표현한 책을 만나고 싶을 때.

여성학 자치도서관 페/미/너/리/로 오세요.
학생회관 3층 총여학생회실 안에 있습니다.



여는 글

특집 그녀들의 옴니버스 스토리



특집

그녀들의 옴니버스 스토리



2005년이 되어 딱국도 먹고 나이도 한 살씩 더 먹었다. 학교는 05학번 새내기 맞기로 북적거린다. 새내기들이 들어오면서 한내기들은 자신의 의지는 아니었으나 뼈 속까지 선배가 되어가는 것을 절실히 느낀다. 특집을 준비하던 우리들은 새해, 새 학기, 새내기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주고받다 어느덧 여자선배들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분명 새내기일 때는 많았던 여자친구들이 여자선배가 되면서 다들 어디로 갔는지 알기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를 말이다.

새내기 적에 남자선배들이 여자선배들은 '개인적'이라 학점관리, 영어공부, 자격증 준비 등등으로 바빠서 후배들을 챙기지 않는다며 흉을 보듯 말했었다. '개인적'이라는 표현에 힘을 주어서 말이다. 어떤 반들은 단과대의 특성상 각 반에도 여자들이 많아야 정상인데, 새내기들이 들어와 보면 남자선배들은 왕창 있는 반면 여자선배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선배들의 이야기보다는 여자선배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지만 그녀들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다. 더러 여자선배들이 많이 남아있는 반이나 동아리들도 있다. 그래도 우리는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그녀들이 어디서 무얼 하며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

여기에 모든 여자선배들의 이야기를 담을 수는 없다. 하지만 정작 특집을 준비하고 있는 본인들이 사라진 여자선배들이라는 것을 깨달자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다.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던 그녀들의 이야기 혹은 오며가며 스쳐지나가며 마주치기만 했던 그녀들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는 그들 중에 한 토막일 수도 있지 않을까. 만인의 관심사인 연애, 운동과 운동부 내의 여자친구들과의 유대, 동아리에서 여자선배로 관계 맺기, 그리고 여성주의와의 만남..... 대단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놀라운 이야기도 아니지만 그러저럭 살아온 이들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다. 또 그러저럭 인생을 살아가는 그대에게 타산지석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난 네가 뭐든 상관없어!”

연애 : 연애를 권하는 사회와 연애 각본, 그 속에서.

본 관 앞에 꽃비가 내리고 캠퍼스 곳곳에 푸릇 푸릇 싱그러운 색이 트는 봄날.

상상만 해도 따뜻한 바람이 내 볼을 스치는 것 같고, 꽃향기가 내 코끝을 간지럽게 하는 것만 같다. 멀지 않아 이 상상의 시간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살은 행복한 거야'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는 설레는 순간이 어느새 이 캠퍼스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을 것이다.

내가 누군데 이런 돈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고 있냐고? 소개하자면 나는, 벌써 대학생활 4년차에 접어든, 20대 중반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수업시간이 아니면 잘 찾아보기 힘들지도 모르는 평범한 고학번 여학생이다. 하지만 이런 나일지라도, 벌써부터 꽃피는 날들을 생각하면 두근두근 거리고 싱숭생숭한 마음이 피어오르는 걸 어찌할 수가 없다. 나도 이런 지경일진데, 이제 막 입시지옥을 풀고 들어오는 새내기들은 이 봄날, 얼마나 커다랗고 아름다운 꿈을 안고 있을까.

연애.

사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장황하게도 '봄날', '새내기' 같은 설레는 단어들을 늘어놓았다.

아름다운 봄날, 기다리던 나의 애인과 연애를 한다는 것. 연애 없는 젊은 날보다 텅빈 게 있을까. 허나, 실망스럽게도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한껏 부풀었던 연애에 대한 꿈은 결국 사라지고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우울하지만은 않다.

꼭 꺼진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나를 채워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한다.

나도 새내기였던 시절이 있었고, 그 땐 20살이라는 딱지를 자랑스럽게 내건 채, 엄청난 자유 속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리고 멋진 로맨스— 더 정확히 말하면, 이성연애—를 꿈꾸었다.

의외로 연애를 시작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연애를 찬양하고 부추기는 분위기는 한 학기도 안 되어 한 반에서 10쌍에 가까운 커플을 탄생시켰다. 잦은 행사와 술자리 속에서 '자유로운' 스킨십이 오가고 조금씩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금세 애인사이로 발전했고, 얼마 안 지나 다음 호 커플이 애인선언을 했다. 물론 모두 이성애 커플이었지만!

이러한 연인들을 위한 주변의 배려는 철저했다. 모임에 참석하거나 말거나 보이거나 안보이거나 커플이니까 모두 그러려니 해주었다. 그리고 커플들은 그런 배려 속에서 둘만의 시간을 편안히 가졌을 테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빈 자리가 허전하지 않았다. 연애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특별한 일이었고, 심지어 축하할 일이기도 했다.

하지만 특별했던 만큼, 철저한 배려를 해주었던 만큼, 그들은 나의 마음속에서나 공동체 속에서나 쉽게 멀어질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듯 했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에 그녀의 연애가 어떻게 귀결되든, 그녀가 다시 공동체에 돌아오는 과정은 너무도 힘들어보였다. 그녀가 연애를 시작하면서 '??의 여자친구'로서 공동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지게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히 연애가 파했을 때, 그녀가 '그녀 자신'으로 공동체에 들어오는 과정에는 많은 혼란과 아픔이 있어야 했다.

그런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나도 1학년 2학기에 들어서면서 연애를 시작했다. 나도 축하를 받았고, 몇 주 동안은 '너 연애한다면서?'라는 물음



을 인사로 대신 받아야 했다.

그 즈음에 나는, 많은 연인들이 그렇듯이 '우리의 연애는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했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싶어 했다. 하지만 정말 결코 쉽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했다. 연애를 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 때는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때,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TV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들이나 이벤트들을 나도 해보면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생각해봐도, 이 땅의 수많은 연인들이 하고 있을 연애를, 그리 많이 다르지 않을 연애의 모습들, 가끔은 내가 의도하지 않게 짜여진 각본 안에서 연애라는 것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두려워졌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내가 여성이라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과 함께 다가왔다. 이성애 연애 안에서 남성과 여성이 취할 수 있는 포지션은 너무나도 달랐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답답하게 만들었다. 예뻐지고 싶다는 강박관념, 여성으로서 나의 섹슈얼리티 실천의 어려움¹⁾, 다른 남성들과의 배타적인 관계에 대한 요구²⁾, 애인의 공동체에 참석하는 것의 불편함³⁾ 등등, 뭔가 꼭 집어 말로 표현해낼 수는 없어도 내가 수동적이라는 느낌이 드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괴롭혔다.

새내기 시절 꿈꾸었던 그 멋진 로맨스는 결국 '별 것' 아니었다. 다른 여러 가지 관계맺음들 중의 하나였을 뿐이다. 내가 '애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일 뿐인 것이다. 다만 난 좀 더 많은 것을 나의 애인과 서로 나누고 기대고 위로 받는다.

연애에 둘러싸인 수많은 이야기들, 모습들, 시선들은

갑비싼 포장일 뿐이다. 데이트, 커플링, 이벤트, 스킨십의 발달 과정들, 끝없이 밀려오는 '연애각본'들... 그 포장을 하나씩 벗겨내고 나면 과연 무엇이 남아있을까?

되돌아보면, 내 대학 생활에서 나의 연애는 아이러니하게도 '연애'라고 하는 무거운 이름을 내려놓는 과정이었다. 연애라는 말을 대신해줄 나만의 관계맺음을 찾아가는 것, 그 관계맺음의 모습들에 새로운 이름들을 지어주는 것. 특히나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었던 막연한 느낌들을 하나 둘 씩 깨가는 과정들과 실천들은, 나를 너무도 편하게 해주었다.

영화「소년은 울지 않는다」에서 티셀은 브랜던이라는 남자를 사귀었고 좋아했다. 그런데 어느 날, 티셀은 브랜던이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브랜던은 이 상황을 수습해 보려고 난감해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찰나에 티셀은 외친다.

“난 네가 뭐라도 상관없어!”

아름다운 봄날, 애인과 길을 걸으면서

연애를 권하고 이 사회 속에서, 남자와 여자는 이렇다라고 하는 매뉴얼이 범람하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그 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관계를 머릿속으로 상상해보는 나를, 그녀들을 만나고 싶다.



by. 고래

1)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남성에 의해 재단되고 차단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남성들의 섹슈얼리티 실천은 '대중 분위기 잡아서 어때서'라는 식으로 카스도 하게 되고, 섹스도 하게 되는 것이 많은데, 그리고 여성도 그럴 것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생각해봐도, 여성이 먼저 자신의 성적 욕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어떠한 방식으로 잊혀지는가에 대해서.

2) 여성과 남성의 관계맺음이 원만한 방식은 좀 차이가 있다. 남성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하나의 '사회생활' 중의 하나로 받아들여지는 반면에, 여성이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는 다른 사람을 만나서 하는 이유에 대한 물음이 요구된다. 대학사회에서는 그것이 눈에 띄게 드러나는 일지만, 아내와 남편을 떠올려보면 쉽게 수긍이 가는 부분이다. 아내와 남편이 갖는 이러한 관계맺음의 방식을, 피상적으로는 무의식적인 연애라는 관계 속에서 내재화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불쾌반응이 가능하다.

3) 남성의 커리큘럼에 여성이 참여하게 되는 것 / 결혼하게 되면 남성의 가족에 여성이 포함되는 것 역시 다른 맥락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성애 가족이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이성애 가족 속에서 자라난 우리들, 남성의 커리큘럼에 여성이 참여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운동이라 그런 것은 아니라



반과 동아리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는 것은 운동부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는 것보다 쉽다. 특히나 여자친구들에게 운동부는 꽤 낯선 곳일 것으로 짐작된다. 여기서 말하는 운동부는 운동 동아리가 아니다. 운동 동아리라 함은 농구 동아리처럼 반이나 단과대학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런 동아리들은 보통 체육관과 별로 상관 없는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운동부라고 하면 보통 체육관에 '부실'이 있는 조직이다. 우리 학교에서 가장 대표적인 운동부는 농구부, 축구부, 야구부, 아이스하키팀, 럭비풋볼부와 같이 연고전에서 경기를 하는 것들이다. 하지만 이런 운동부는 운동을 취미로 즐기려는 학생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려는 운동부는 태권도부, 유도부, 미식축구부와 같은 곳이다. 연고전을 치르는 다섯 개 운동부를 제외한 운동부는 별로 없기도 하거나 동아리도 아니기 때문에 동아리 안내 책자 같은 곳에도 소개되지 않아 이에 대해 듣기는 좀처럼 쉽지 않다.

나는 많은 친구들이 반 활동을 할 때 언론과 운동부 활동을 했다. 언론 활동을 하는 친구들은 주위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운동부 활동을 했던 여자친구의 이야기는 찾기 힘들다. 드물게 매니저로 운동부에 속해 있는 여자친구들도 있지만 나의 경우와는 조금 다르다. 내가 속했던 운동부는 매니저가 따로 없었고 여자부원들도 남자부원들과 비슷하게 운동을 하고 부 활동을 하는 곳이었다. 이제 더 이상 활동하지 않고 있는 공동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새삼스러울 수 있다. 경험한 운동부라고

는 하나밖에 없으면서 운동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는 비약이 있을 수도 있다. 사실 내가 하려는 이야기는 일반적인 모든 운동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다만 내가 활동했던 곳을 직접적으로 호칭하는 것을 삼가며 운동부에 관심이 있을지도 모르는 당신에게 운동부의 매력과 운동부를 선택하게 될 경우에 미리 생각해 보면 좋을 것들에 이야기해보려는 것이다.

나는 연세대학교에 들어오기 전부터 해오던 운동이 있었고 그 운동을 계속 하고 싶어서 관련된 동아리를 찾았다. 운동 동아리에 들어가면 하고 싶은 운동도 계속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나름의 유대관계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유쾌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게 운동하는 동아리는 매우 대단히 매력적인 곳으로 다가왔다. 동료들과 함께 땀 흘려 운동한 뒤의 맥주 한잔의 낭만에 대한 기대도 한 몫 했다. 실제로 시작한 것은 동아리가 아니라 운동부였지만 말이다. 운동부와 동아리를 유별나게 구별해 내는 능력은 없었던 까닭에 운동, 동아리, 친교, 건강을 모두 거머잡을 수 있는 운동부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1학년 때는 정말 열심히 운동부 활동을 했다. 움직이는 것을 몹시 싫어하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뒤통스 몸을 움직이며 느끼는 즐거움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게 운동은 여전히 굉장히 즐거운 것이었다. 그런 운동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도 역시 멋졌다. 그리고 1학년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다른 관계들

은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었고 새내기들을 전적으로 챙겨주는 선배들이 고마웠고 그들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고, 요즘 들어 생각한 것이지만 그 관계는 한편으로 내게 편리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생각이 바뀌고 학년이 오르고 후배들이 들어오고 전공이 생기고 시간이 줄어듦에 차츰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 갈팡질팡 했으며 더 이상 운동이 재미있지 않았고 함께 하는 운동은 결코 즐겁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그 운동부 사람들에게 그나마 별로 없었는데 어느새 사라져버린 여자부원이 되었다.

한 때는 거짓말 조금 보태서 헌신적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운동부를 떠나게 된 데에는 복잡다난한 이유들이 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평소에 친구들이 '운동부'라는 단어를 듣고 당황스러운 기색으로 보였던 염려들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었지만 말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예민'해지는 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운동부는 누구나 생각하고 나도 생각했던 것처럼 남자들은 몹시 많고 여자들은 매우 적은 공동체이다. 평소 여자친구들과 지내듯이 남자친구들과 지내는데 별다른 어색함을 느끼지 않았던 나는 자신 있게 남자가 절대다수인 공간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1학년 때 남자를 불문하고 선배들이 많이 챙겨줄 때에는 그러저러 괜찮았다. 다만 남자들이 절대다수인 공간에서 여러 가지 불편을 겪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여자친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2학년이 되었고 나는 더 이상 보호대상이 아니었고 여자동기는 애초에 없었으며 내가 1학년 때까지는 그나마 있었던 여자선배들은 줄어들기 시작하자 상황은 곤란해졌다. 내가 그 안에 남으려면 최소한 존재인 여자부원으로서 어떻게든 자리를 잡아야 했다. 하지만 나는 줄어들기 시작한 여자선배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들과 고민을 나누려 하지 않았고 남자동기나 선배들과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애초에 운동부 활동을 시작할 때 수다를 떨며 그 안에서 겪는 불편함 혹은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여자친

구를 만날 것이라는 기대는 별로 하지 않았다. 남자가 절대다수인 운동부에서 여자친구를 만나기조차 어려운데 그런 꿈을 꾸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나의 자리를 찾아야 하는 순간에 나는 내가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조언을 구할 여자친구 혹은 선배를 찾지 못 했다. 그리고 남아있는 여자선배들에게 이야기조차 해보지 않은 것이 조금 후회되기도 한다. 그녀들도 그 안에서 자신을 지탱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을 것이므로 내게 약간의 코멘트 정도는 해줄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들어올 여자후배들에게 지지대가 되어줄 수 없다는 것이 미안하기도 하다. 선배든 후배든 여자친구로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텐데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땀 흘려 운동하는 것을 좋아한다. 특히 몸을 움직이는 즐거움을 만끽하고 스스로 내 몸을 지키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격투기 종류의 운동을 좋아한다. 하지만 운동부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방어적이다. 처음에 친구들이 했던 우려를 훨씬 구체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이다. 사회적이든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남자들이 절대다수인 공간에서 절대소수인 여자부원으로서 그들과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관계를 이끌어 내는 것은 제법 어려운 일이었다. 때로는 여자가기 때문에 받는 배려가 지나친 것으로 생각되어 부담스러웠기도 했다. 함께 운동을 하는 '동료'라는 느낌보다 '여자' 부원으로 존재한다는 느낌이랄까. 대신 집 근처에 있는 체육관에서 운동을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

여자친구들과 있는 것이 조금도 어색하지 않고 부족함이 없고 100% 싱크로율을 느끼며 즐거운 당신이라면 남자들이 절대적으로 다수인 운동부와 같은 환경은 조금 부담스러울지도 모른다. 허나 몸을 움직이는 것은 매력적인 선택일 것이다. 운동이라는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니 말이다. 그리고 찾으려고만 한다면 운동을 하는 방법을 생각보다 많을 것이다.

by. 형

여성주의를 만나라



작년, 신촌에 있는 영화관에서 '서울 여성영화제'를 했을 때였다. 당시 한창 색슈얼리티 문화제에

대해 의논을 하고 있었던 문화제 기획단들은 함께 영화제를 가기로 했다. 영화를 보러 들어가려다가 영화관 앞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엽서 꽃이를 발견하고 몇장을 챙겨 들었다. 그중에서 지금도 생각에 남는 엽서 한 장이 있다.

엽서에는 6컷 정도로 이어진 만화가 그려져 있었다. 예쁜 드레스를 입고 반짝거리는 유리 구두를 신은 한 여자아이. 그 아이는 거울을 보며 만족의 미소를 짓는다. 자신이 갖고 싶어 하던 것들을 모두 갖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후 여자아이는 예쁘게 장식된 '관' 안에 가만히 눕는다. 한참을 그렇게 누워있던 아이는 '이게 다인가? 내가 원하던 것이 이것인가? 이걸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컷의 이 여자 아이는 드레스와 유리 구두를 내버리고 청바지로 갈아입은 후 답답한 관을 뒤흔쳐낸다.

흔히 말하는 '정식'에 충실하려고 했던 나의 성격 탓이기도 하지만, 대학에 입학하고 '여성주의'란 것에 대해 알기 전, 나의 모습은 드레스와 유리 구두를 좋아하는 여자아이와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규정해놓은 '여성상'을 좇고자 했고,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호뭇해하는 아버지나 주위 선생님들을 보며 만족해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저 아이, 정말 참하다~', '말머느리감이다.' 등등의 말을 들으면서 호뭇해하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그런 호뭇함 뒤에는 나도 모르는 답답함이 있었다.

아버지나 선생님들이 칭찬하는 나의 성격대로라면 내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 보았고, 그러한 삶은 매우 한정되고 답답한 삶이었다. 또한 결정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남자/여자라는 굴레를 벗어나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은 사회

적으로 만들어 놓은 '여성상'에 부합하지 않았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는 건축일을 하셨다. 나 또한 멋지고 세련된 아파트나 건물들을 보는 것을 좋아했고, 나도 저렇게 멋지게 건물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한때, 건축과를 지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안 아버지의 말 한마디는 나에게 너무나 큰 실망과 상처를 주었다. '건축일에 무슨 여자나! 날고뛰는 남자들이 넘쳐나는데 여자가 가서 뭘 하려고!' 나는 그런 말들이 너무 싫었다. 내가 능력이 안 돼서도 아니고 내가 여자라서? 정말 그것이 내가 꿈을 포기해야 하는 이유가 된단 말인가?

이렇게 사회적 여성상에 충실하려고 했던 나의 생각과 아버지와 이런 마찰은 나를 혼란스럽게 하였다. 그러던 중, 그 혼란의 정체를 사회적 여성상이란 것에 대한 가면을 벗겨낼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작년, 한 여성주의자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였다. 우리 사회에서 규정해 놓은 여성의 역할, 위치, 그리고 그 모습들 등등은 과연 여성 스스로가 창조해낸 것이며 그것은 여성 스스로를 행복하게 하는가?

대학에 오기 전까지 아무런 성찰 없이 받아들였던 여성/남성의 성 역할과 모습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매우 불합리한 권력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었고, 여성에게 매우 억압적인 기제로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알고 나니 그동안 나의 모습이 부끄럽기도 했다. 하지만, 부끄러움보다 나에게 주는 즐거움이 더 컸다. 여성주의란 것에 대해 알고 나서부터 사회적인 틀에 나를 맞춰나가야 할 필요도 없어졌으며, 스스로에게 편한 방식으로의 삶을 꾸꾸고 추구할 수 있는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아직 여성주의에 대해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여성주의 안에는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한 고민들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 나는 여성주의에 대해 이제 막 맛을 보고 그 단맛에 푹 빠져 있는 꼴별 같다는 생각을 한다. 여성주의는 나를 긍정하는 힘으로 나에게 힘의 원천이 되어주고 있다. **by_ 불꽃**



우치지기, 관계맺기, 긍정하기

대학 생활에서의 단상들



반 활동을 그만두기 전, 그러니까 내가 1학년 1학기 때, 2학년이었던 한 남자 선배가 이런 말을 했다. 여학우들은 학년이 올라가면 학점 관리하고 자기 갈 길 바빠서 반에 거의 나오지 않는다. 너희는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그 선배는 반을 떠난 여자 선배들을 이기적인 사람처럼 묘사했고, 그 당시 나는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 말이 나쁘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런가보다 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 나도 어느새 반을 떠난 그 여자 선배들 중 하나가 되어 있었다. 아마도 그 선배는 여전히 반에 남아서, 나처럼 반을 떠난 사람들을 '자기 일에 바빠 공동체를 버린 이기적인 사람' 등으로 다른 후배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반을 떠난 여자 선배들, 나를 포함한 그 여자 선배들의 대학 생활은 그렇게 한 마디로 규정되지 않으며 그들에 의해 함부로 말해질 수 없다.

나는 그동안 학교 외부의 활동과 (부끄러울 만큼 조금의) 여성주의 활동을 제외하고는 연극 동아리에서 주로 지냈다. 반에서는 적응을 못했던 내가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했던 것은, 반에서처럼 거칠고 남성 중심적인 문화가 적어서이기도 하고, 모델로 삼을 만한 여자선배 몇 명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에서는 남자 선배와 연애를 하거나 반의 '엄마' 역할로 남아있는 여자 선배들밖에 보지 못했지만, 동아리에서는 여자 선배들이 회장이나 공연 연출로 활동하고 있었기에 나는 공동체에서 내 역할에 대해 어떤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 예전처럼 권위주의적인 선배가 많은 것도 아니고, 여자 부원들의 역할도 꽤 비중 있어서 그러저럭 평등한 동아리. 다만 연극 대본 중에 낯은 것이 많아서 주인공은 거의 다 남자였다. 여배우들은 아줌마 역할, 또는 배역에 버젓이 '창녀'라고 쓰여 있는 성매매 여성, 혹은 캐릭터가 예쁘고 착한 것이 전부인 첫사랑의 대상, 이런 식의 스테레오 타입 이상을 맡기가 힘들었다. 그렇지만 최근엔 여성들만 나오는 연극도 좀 있고 전형성을 탈피한 여성 캐릭터도 생긴 편이다. 물론 이런 변화는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수많은 여성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여자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동아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지만 나는 여자 선배들과의 관계 맺기를 잘

하는 편이 아니었다. 아니, 언제나 서투르기만 했다. 후배들의 학년이 햇갈릴 무렵에서야 나는 여자 선배 되어주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비슷한 경험을 해온 동성 사이가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쉽고, 이성 선배들 간에 친할 경우에는 '연애' 관계로 의심받기 쉬운 '연애' 관하는 대학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동성 선배들 간에 더 친해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남자 선배보다는 여자 선배가 적고 여자 후배는 많기에, 그 많은 여자 후배들에게 필요한 조언과 배려는 늘 부족한 것이었다.

3, 4학년이 되면 반뿐만 아니라 동아리나 기타 학내 활동에서 멀어지고, 학점과 토의 공부로 바빠지는 여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것이 대학 내 공동체에서 여자 선배들을 만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남자들이 중간에 군복무라는 시기를 가지는 것에 비해, 훨씬 빨리 졸업과 진로 결정에 맞닥뜨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자라는 이유로 받게 될, 예상되는 차별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학점과 영어 점수, 외국생활 경험에 더 매달리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여학생들의 대학생활 주기, 그리고 동아리 활동과 학업과 진로가 복잡하게 얽힌 고민이 있다. 나도 이런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고 최근에 여자후배들이 상담을 청해오기도 했다. 나도 해답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비슷한 행보를 걸어왔기에 내가 그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조금 여유를 가지라는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하긴 하지만 무책임한 낙관론만은 아니다. 학업과 동아리 활동이 배치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여학생들은 졸업이 더 빨리 닥쳐오기에 더 많은 압박감을 느끼겠지만, 당신이 해왔던 활동이 당신을 자라게 했고 앞으로의 삶에 어떤 식으로든 긍정적인 영향을 줄 테니 지금까지의 경험을 스스로 높이 평가해주라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주위의 여자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서투를지라도, 나도 여자 후배들에게 여자 친구로서 다가서려 한다. **by_ 섬**



강의실 성폭력/ 성희롱 근절 캠페인

연세대학교,
반성폭력 학칙을
개정하다

강의실 성폭력/
성희롱 근절
캠페인

대 학이라는 공간에 들어오기 전까지, 집안일을 남편과 분담해서 하겠다는 그런 꿰뚫은 생각은 하지 말라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여성은 '순결'을 꼭 지켜야 하지만, 남성은 뭐 꼭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옷을 무시하는 안경이 개발되고 있다며, 그런 안경이 나오면 정말 좋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지질학은 여성이 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자주 말을 듣지 않으면 텍사스촌에 넘겨버리겠다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자고로 남성은 태어나서 세 번만 우는 것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선생님이었고,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옮겨가 아님니다. 그들은 우리의 학교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 이었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너무나 취약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대학 입시라는 훨씬 더 '중요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적어도 그들이 보기에는).

나름대로 대학은 자유로운 공간이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는 말 그대로 터무니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겪었던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각종 성폭력과 성희롱은 지금도 바로 강의실에서 교수에 의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재미있는' 수업을 위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라는 말과

함께 교수가 내뱉는 성폭력적/성차별적인 말 한마디 한마디는 불쾌감을 불러 일으켜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또, 수많은 학생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거나 잘못된 인식을 더욱 강고하게 합니다. 그들은 우리들의 진로, 학점, 학교생활 등의 주도권을 쥐고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와 교수 사회의 지지를 업어서 더욱 강력하게 중무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예전처럼 침묵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분명히 변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선생님'입니다. 하지만 성폭력/성차별적 발언을 일삼아 학생들을 불쾌하게 만들어 학습권을 침해하며, 권위를 이용해 이를 무마시키려하고 알량한 자존심에 스스로의 언행을 돌아보려는 시도조차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제발 이제 우리의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움과 유쾌함, 행복이 어우러진 수업을 들으며 여러 지식과 다양한 시각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시간이 다가올 때마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수업이 제발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반성폭력의 물결, 강의실 성폭력/성희롱 근절 캠페인이 시작됩니다. 2005년 1학기, 강의실 성폭력/성희롱 모니터링 요원을 모집합니다. 한 학기동안 듣게 되는 수업을 모니터링해서 제보/신고해주세요.

신청방법

fenegyup@yonsei.ac.kr
02-2123-3645

또는 여자만의 방 femispace.cyworld.com
수업모니터링 게시판에 바로 제보 / 신고해주셔도 됩니다.

모니터링 내용은 강의실에서의 성폭력 사례를 수집하고 그 실태를 파악하여, 학내에서 교수성폭력 문제를 이슈화 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신고를 했느냐가 아니라,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모니터링 내용 접수와 문제제기 과정은 모두 익명으로 진행됩니다.

여성학 학교

여성주의,
다가가고는 싶은데
왠지 어려우시디구요?
하고 싶은 말을 좀처럼 나오질 않고
질문만 가득하시디구요?

3월 10일,

여성학에 대해
눈과 귀를 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여성학 학교가 열립니다.
반성폭력, 여성의 몸, 성매매,
가족, 장애여성, 성소수자 등
여덟 가지의 주제로 만나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
여성의 이야기를 낱설지 않은
나의 이야기로 만들고 싶은 분들을
기다립니다.

페미니즘과 만나고 나서



나는 정말 무식한 고등학생이었다. 그렇게 무식한 채로 대학생이 되었다. 나는 '페미니즘'이 '여성 우월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정의를 어디서 가 읽어보고 그것을 그대로 믿고 있었다. 그래서 속으로 페미니즘은 이상한 것이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또 얼마나 무식했냐면, 대학에 들어와 한 선배가 너 혹시 '여성학'에 관심이 있지 않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여성학'이 뭔지도 전혀 몰라서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그 페미니즘이니 여성학이니 하는 것이 알고 보니 다 비슷비슷한 동네에 있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얼마나 당황했는지.

페미니즘이 뭔지, 여성학이 뭔지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대학에 들어간 첫 달 어느 날, 총여학생회실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정의되지 않은 무언가 막연한 느낌이 나를 그곳으로 이끌었을 것이다. 그때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다고는 생각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언가를 할 것이라는 추측이나 믿음이 있었던 것이다. 무식했음에도, 어떻게? 페미니즘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아야 페미니즘이 추구하는 것을 원하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얼마 전에는 무심코 엄마랑 앉아서 TV의 요리 프로그램을 보는데, 그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와인에 대해 설명하면서 "와인은 여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아무리 곱게 키워도 좋은 남자를 만나지 못하면 행복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와인도……(중략)…… 이렇게 말하면 아마 페미니스트 분들이 뭐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여자만 그런 것도 아니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아무리 훌륭하고 멋지더라도, 좋은 여자를 만

성차별주의가 불러온 억압과 왜곡에서 벗어나는 세상은 어떤 것인지를 상상할 수 있는 힘이 바로 페미니즘 속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페미니즘을 공유하는 것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다른 상을 공유하는 것이고, 희망을 공유하는 것이다.

나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라고 하는 것이었다.

일종의 병 같은 것일지도 모르지만, 이젠 나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정의하게 된 나는 어디서 '페미니스트'라는 소리, 글자만 봐도 괜히 긴장하고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한다. 이 때는 같이 TV를 보던 엄마도 내가 페미니스트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쩐지 엄마가 나를 힐끗 봤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더 긴장감이 생겼다. 그런데 이 진행자의 이런 결론이 안도감을 줬다고나 할까.

사실 여자에 와인을 비유했을 땐 냉큼 욕하는 기분이 들었다. '뭐야 저 진부한 비유는', '왜 하필이면 여자에 비유해...' 등등. 그러다가 '페미니스트' 운운하기 시작하면 내 머릿속과 TV에서 말하는 사람 사이에 유치한 공방전이 오갈 것을 예상하는 것은 당연지사. 왜냐하면 '페미니스트들은 이리이러하다고 생각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온 다음에는, 보통 왜 그 '페미니스트'가 틀렸는가에 대한 얘기가 줄줄이 나오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경우 이 '줄줄이' 얘기들이 내가 보기에는 다 웃기는 소리이긴 하지만, 또 그 웃기는 매도에 열은 받는다. 그런데, 이 요리프로그램 진행자는 단순한 차원의 '남녀평등'이라는 개념이라도 받아들이는 말로 그 비유를 끝맺었으니, 그 사람이 생각하는 '페미니스트'들의 생각을 어느 정도 동의한 셈이다.

그 무식한 내가 페미니스트로 살기로 마음먹은 지도 만7년이 넘어가고, 이 짧은 시간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의 여성학에 대한 태도가 점차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법이나 먹는 법을 가르쳐 주는 요리 프로그램에서조차 그 '페미니즘'이라는 단

어를 만나고, 가볍게 보는 미국 시트콤에서도 여성주의적인 대사들을 들으며 통쾌해하면서 나는 문득문득 정말 놀라곤 한다. 어쩌면 사람들은 '페미니즘', '여성학', '여성주의'를 특별히 책을 읽지 않고서도, 페미니스트가 되려고 힘들게 이 사람 저사람과 싸우지 않고서도 페미니즘을 체득해나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심지어는 "나는 페미니스트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페미니스트(이런 경우는 그 사람의 활동이나 작품, 언행 같은 것들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여성주의적인 영감이나 공감을 일으켜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가 생겨나기도 한다.

나만 페미니즘을 모르면서 페미니즘에 끌리는 경험을 한 것이 아닌 것 같다. '페미니즘'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새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고 페미니즘의 이상을 자신의 생각과 조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까 그 음식 프로그램을 보면서 살짝 긴장했다가 풀어진 나는, 그래도 여전히 찝찝함이 남았다. 페미니즘이 바로 거기- '왜 여자는 이렇게 남자는 저런가?', '왜 여자만(남자만)?' 등의 질문-에서 시작하는 것은 아주 쉽다. (물론 이 질문에서 성차별주의로 나가는 대답을 얻는 나쁜 경우도 있지만.) 또, 자기 자신의 언행이 성차별적이지 않은가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그것을 성찰하고자 하는 겸손한 역시 페미니스트가 되는 데 좋은 미덕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래서 그 요리 프로그램 진행자는 어떤 측면에서는 내 맘에 들었다. 하지만, 음식과 여성을 비유하는 것, 여성과 남성은 '결맞은 이성(異性)'을 만나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은 모두 어떠한 의심이나 불편함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저 산술적인 평등, 모든 사회적 조건들이 그대로인 상태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평등이라는 식으로 페미니즘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비록 성에 차지 않는 그 정도라고 하더라도 페미니즘은 수많은 사람들이 현 상태를 의심하게 만들어왔다. 단순화된 '양성평등'이라는 관념조차도 평등하지 못한 현재 사회를 무언가 다른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불러일으켰다.



'페미니즘은 성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에 근거한 착취와 억압을 종식시키려는 운동'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페미니스트인 벨 훅스는 말했다.¹⁾ 문제는 '성차별주의'인 것인데, 이 '성차별주의'가 어떤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은 너무 깊고도 넓은 것이다. 그래서 나는 벨 훅스처럼 자신 있게 페미니즘은 무엇이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페미니즘이 내게 가르쳐준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하다. '이것이 성차별주의적이지 않은가?' 하고 내 주변의 것들을 의심하게 해 준 것이다. 그 다음은 '성차별주의적이지 않다면 어떨까?' 하고 다른 세상을 상상하는 것이다. 그 요리 프로그램 진행자와 나는, 그래서 어느 정도 공유하는 것이 생긴 것이다.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나를 둘러싼 것들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나와 이 사회 뿐만 아니라 전 인류와 역사가 다른 방식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의심은 어떤 회의나 염세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성차별주의가 불러온 억압과 왜곡에서 벗어나는 세상은 어떤 것인가를 상상할 수 있는 힘이 바로 페미니즘 속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페미니즘을 공유하는 것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다른 상을 공유하는 것이고, 희망을 공유하는 것이다. 어떤 지식을 공유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이 이 속에 있다는 것을 나는 페미니즘을 만나고 나서 알게 되었다. 페미니즘을 모르고 페미니즘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힘을 살짝이라도 느꼈던 것은 아닐까.

이제는 TV와 신문에서, 길에서, 강의실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자주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종종 내게 들려준다. 어떤 사람은 나와 생각이 비슷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와 다르기도 하다. 아무리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페미니즘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았다면, 페미니즘이 주는 희망을 공유하는 행복한 순간을 언젠가는 함께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보기도 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의심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모든 페미니스트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주요인물

by_ 솔레 여성주의 때문에 기쁘고 비뚤다. 이마 글 속에 자기 소개가 점차 펼쳐질 것임

1) 벨 훅스(Bell Hooks), 『평등한 페미니즘』(Equal Feminism is for everybody, personal political, 비영리 출판, 해운당사, 2002년)

길 위에서 만난 '그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에
여성 여행자들을 초대하는 옥임씨

● 여대생들이 주축이 된 '여성 여행'을 소개하는 신간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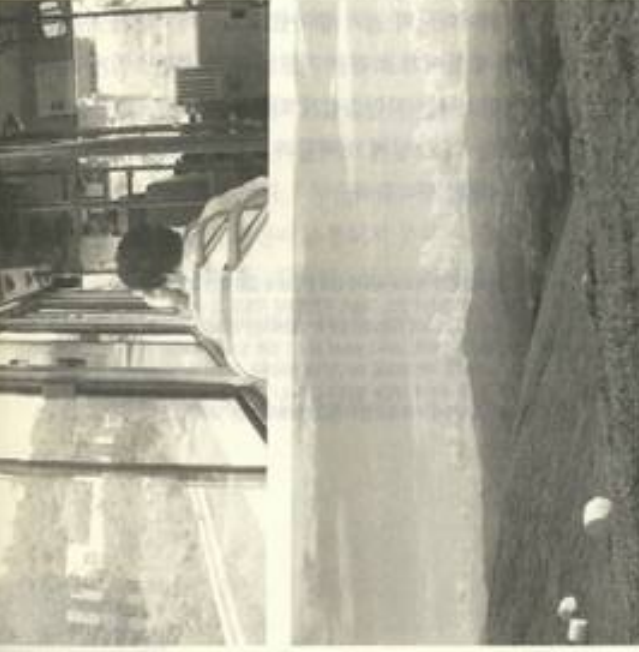
언마 전에 들었던 강연의 짧은 이야기 하나, 서양화가 나혜석은 파리의 풍경을 그림에 담아 전시회를 연 조선의 첫 여성 화가였다 한다. 당시 여성들은 주로 정물화를 그렸는데, 바깥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여성들이 풍경화를 그리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허물며 외국의 풍경을 그리는 것은, 국가의 경제의 넘어 해외 여행이 자유로운 이들에게만 허락되는 것이었으니, 여성 화가들에게 외국풍경을 그린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었을 듯하다.

신여성 나혜석은 세계일주 여행을 한 후 파리에 서 보낸 시점을 스케치한 작품들을 선보였고, 그렇게 외국풍경을 그린 화가로서 '길 떠나는 여성'이 되었다. 여성들이 길을 떠난다는 것, 여행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처음에는 여성의 규범에 대한 도전이었으며, 새로운 방식으로 여성을 사유하게 만

성. 그리고 혼자서 민박집을 운영하던 43세의 여수 아주머니... 그녀들과의 좋은 만남, 때로 금세 말이 통하는 경험, 어쩌면 그것은 여성들만의 여행, 여성 혼자 떠나는 여행이 무엇인지 서로 잘 알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 이렇게 길 위에서 만난 나는 멋진 여성들 덕분에 나는 늘 미윽속으로 여행 생각을 멈출 수가 없다. 오늘 소개할 이도 바로 그렇게 길 위에서 만난 멋진 여성이다.

4년 전, 제주도 배낭여행 중이었다. 친구와 내가 마지막 일정인 한라산을 남겨두고 류기로 정한 마지막 숙소였던 민박집, '시골풍경'에서 우리는 그 너, 옥임언니를 만났다.

언니네(www.unninet.co.kr)에 올라온 '언니들의 여행을 도와 드리겠다'는 글을 보고 후시나 하는 마음으로 연락해서 알게 된 곳이었다. 그녀와의 만남 역시 여성주의 덕분이라 해도 되지 않을



드는 일이었다. 이제는 여성이 여행을 한다는 것이 너무 당연한 소리처럼 들리지만, 지금도 여전히 길을 떠나려는 여성들은 많은 제약들과 싸움을 해야 한다. (이십대 초반의 여성이) 혼자 여행하는 것이라면 짐을 꾸릴 때부터 가족들에게 잔소리를 듣거나 혹은 같이 가는 이가 있노라고 거짓말을 늘어놓아야 하며, 여행하는 와중에도 수많은 '혼자 여행 온 여자'에 대해 궁금해 하는 남자들의 시선 지 않은 추근거림에 시달리기도 한다.

하지만 혼자서 혹은 친구와 함께 떠나는 여자들의 여행은 그만큼 다른 여행에서 맛보기 어려운 즐거움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 기차 안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혼자서 야간열차를 탄 70대의 할머니, 혼자 제주도에 와서 회를 싣고 먹고 간 26살의 여

자, 시내에서 그녀의 차를 열어 타고 간 곳 '시골 풍경'은 여는 민박집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한 조용한 주택가의 마당이 넓은 단층집, 간판도 없이 그저 '시골풍경'이라기에 그런 줄 안 그곳에 옥임언니와 하얀 강아지 시골이가 살고 있었다. 여는 민박집처럼 민박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 아니라, 비어 있는 방에 가끔 알고 찾아오는 여성들에게 방을 내주는 그런 곳이었다.

30대 후반쯤 되었을 옥임언니는 대학에서 관광학을 배우는 학생이라고 했다. '시골이'와 둘이 살면서 언젠가는 누군가를 초대하기도 하고, 문을 잠그고 훌쩍 여행을 떠나기도 하는 홀가분한 사람, 그녀는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다. 흔히 사람들을 이 따르는 삶의 주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방을 가지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서 여행 오는 이들에게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나누는 그녀가 우리에게는 무척 좋아 보였다. 여행을 하면서 만나는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 흔히 전해진 보편적 삶의 태두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협소한' 것인지 새삼 생각하곤 하는데, 그녀 역시 그 태두리에 자신을 가두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다. 물론, 비혼의 삶을 '낭만화'하고 싶은 생각은 아니다. 오히려 한국 사회에서 결혼 제도에 편입되지 않은 여성에게 닥치는 수많은 불편함과 고난함에도 불구하고 비혼의 삶을 택한 그녀일 것이기에 그만큼 더 의미 있게 다가왔던 것이다.

옥임 언니는 자신의 집을 찾는 여성들의 여행에 같이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서로의 시간에 아주 조금씩 발을 맞추는 것, 그녀는 그렇게 자기 삶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혼자 오는 언니가 있으면 차를 태워 회를 먹으러 가기도 하고, 시간이 되는 날은

같이 한라산 등반을 하기도 한다고 했다. 우리 집에 오는 언니들을 좀 재미있게 여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다들 재미있는 구석 하나씩 가지고 그렇게 집 하나 달랑 들고 오는 이들이 많다고 슬그머니 자랑을 하기도 했다. 그녀는, 나와 친구에게도 버스를 타고 가며 한라산입구까지 너무 멀다면서 차를 태워줄테니 같이 등산할 것을 제안했다. 주먹밥에 김치까지 싸들고 한라산 중턱 뒷세오름에 올라 컴러면을 먹고 크게 쉬호호도 하고... 그리고 산에서 내려온 우리는 간소한 차림의 밥을 나눠 먹고 배달된 차킨에 늦은 시간까지 맥주 잔을 기울이면 서늘하게 멋진 여성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는 우리의 여행에 감사했다.

그 당시 '시골풍경'의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열심히 책을 들여다보고 있던 언니는 홀리는 말로 홈페이지가 오픈하면 들려달라고 했고, 나도 스쳐 지나가는 말로 뒷세오름에서 찍은 함께 사진을 보내주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여행에서 만난 이들이 대개 그렇듯, 그것은 다음 만남을 약속하기 보다는 여행에서의 짧은 만남을 마무리하는 말이었다. 여행하는 와중에 만나는 좋은 사람들, 굳이 이렇지도 않고 자세한 이야기도 묻지 않고 그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많은 것을 남기는 것이 또 여행이 가지는 묘한 매력이다.

제주도가 고향이던 한 친구는 여행자로써 관광지를 찾은 이들이 대상화하는 '현지 여성'이 되었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 '관광지', 바로 그 곳에 사는 여성들이 여행에 대해 갖게 되는 다른 시선의 경험들이 있노라고, 사실 4년 전 제주도에 갔을 때는 이런 생각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돌아와 이제 생각하니 그 언니는 가끔 자신의 집에 들르는 여성 여행객들과 조금은 다른 경험을 나누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싶다. 그녀가 의도했던 아니던 그 덕분에 나는 '길 위에서 멋진 여성들을 만나는' 여행의 매력을 한 가득 느낄 수 있었다. 아마 그녀에게는 이 이야기를 전하지 못하겠지만, 언젠가 여행을 꿈꾸는 나는, 길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내가 받았던 것들을 때로 나눠주고 하고, 또 늘 그렇듯 그녀들로부터 얻기도 하면서 그렇게 계속 여행할 것이다. 그 길에서 어느 날 그녀를, 또 다른 그녀를 만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 또한 더 많은 언니들을 제주도에서, 또 다른 길 위에서 만나고 있으리라 믿는다. **한나**

by. 이경 한 때 행복한 여성주의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멋진 여성들을 많이 만나게 해 준 여성주의 덕분에 행복하다. 이 지면에서 그 멋진 여성들과 나의 이야기를 조금이나마 할 수 있어 무척 기쁘다.



첫 만남

다시 3월이 돌아왔다.

2월 중순 즈음이면 겨울의 조용하던 학교 공기가 어느 순간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학생 회관 앞에 삼삼오오 모여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백양로에 신입생들을 환영하고 환영하고 환영하는 플랜카드가 하나둘 걸리기 시작하고, 발 디딜 틈도 없이 인파로 북적대는 점심시간의 학생회관 앞, 여기저기서 오가는 인사들, 몇 명의 선배들과 몇 명의 후배들이 무리를 지어서 만나고, 안부를 묻고 농담을 던지고, 꼭 즐거워야 할 것처럼 부스스하게 오가는 말들과 표정들. 밤이면 여기저기서 벌어지는 술자리에, 이것이 낭만일까? 라고 절규하는 듯한 응원판까지..

대학의 3월은 과/반 동아리의 새내기 맞이와 더불어 그 어느 때보다, 관계에 대한 갈망과 노력이 일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절이기 쉽다. 그러나, 그런 기대들만큼 당신에게 그 시간들이 발랄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가. 혹은, 어딜 가나 사람과 웃음이 넘쳐나지만, 그래서 더 묘하게 어색한 기분들과 알 수 없는 허탈감들이 슬며시 차오르던 것이 생각나지는 않는가.

서로에 대한 정보가 없을 뿐더러, 서로 익숙하지 않은 여러 사람이 일단 친해져야 한다는 목적으로 모인 학기 초의 반이나 동아리 모임은 대개 성급하게 친해진 시늉을 해야만 분위기가 사는 것 같은 이상한 압박감에 짓눌려 있다. '우리 친해요'라는 식의 화기에애한 분위기를 자아내기 위해서는 끝이지 않는 웃음이 필요하고 그 웃음을 위해서 편의상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분류되고 규정된다. 서로를 규정하고 놀리는 것이 학기 초에 만연하는 '재미'인 것이다. 그리고 그 분류와 규정의 기준은 대개 손쉽게 상대를 재단할 수 있는 나이·성별 그리고 나이와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몸과 이성에 연애를 둘러싼 억압적인 담론들이다.

대학에 와서 처음 경험했던 놀라운 일 중의 하나는 내가 어떤 몸을 가졌는가를 하는 것이 사람들이 나를 재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었다.¹⁾ 동아리방이나 과/반방에서 오가는 손쉬운 농담들을 회상해보자. ** 같이 조신하게 생긴 애가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 내가 해 줄게~~. '오~~ 웬일이야 오늘 치마입고 왔네?', '에이,**아 너는 남자애가 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니~' 동등등...

그 말들은 '농담'이다. 그러나 아주 구리디 구린, 정색해서 말하자면 폭력적인 농담이다. 치마를 즐겨 입고, '여성스럽게' 자신을 꾸미기에 적절한 여자와 그렇지 않은 여자의 이분법, 이 이분법은 만연한 이성애 연애 각본과 환상의 콤플렉스를 이루며 일상 속에서 작동한다. 대학의 첫 만남들에서 여성은 '연애상대가 될 수 있는 여자'와 '남자에 같은 여자' 두 가지로 나뉘어져 우스갯거리의 소재가 된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 '웃자고 하는 말들'은 이 이분법적 선택지 중 너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어울릴 테냐? 라고 끊임없이 물어댄다. 웬지 모르게 그 질문들에 들어맞는 대답을 해야만 할 것 같은 압박감들. 이름 되면 그들 앞에 내가 어떤 인간으로 드러나는 지를 결정하고 고민할 주체성은 내게서 사라져 간다. 쉽게 말해 어색하게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다. 뛰어다니며 놀기 좋아했던 나인데, 왜 저 응원판의 중심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는 것은 부당스럽게 느껴질까. 평소에는 자연스럽게 하는 어떤 행동들이, 그들 앞에서는 왜 그렇게 어색할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1) 일상에서 이를 위한 학교의 태두리 안에 운송하게 강제 있던 고등학교 시절까지는 아직 '여성'이 아니었다는 점도 있고, 그래서 이성애의 각본과 그 속에서 '여자되기'는 거대한 이데올로기이자 TV속의 재현되는 일종의 수준에서는 압력을 가해줄 뿐, 현실적인 압박은 그리 크지 않은 시절이다. 그러나 수능이 끝나고 합격 발표를 기다리는 겨울 동안 당연한 수준처럼 다이어트를 위한 운동을 하기까지의 권유라고, 학교에서는 23을 위한 공식행사도 에이 크립 강사를 포함한 시범을 보이더니, 역시나 그것들은 '여자되기'가 청소년을 벗어난 대학에서의 생활에서 무척 중요한 '외모,인상'을 예고해주는 일들이었다.

이런 난감함과 어색함을 견딜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은 나를 규정짓는 이 무식한 틀거리들을 어떻게 벗어나서 자신을 드러내야 할지를 고민하며 전략을 짜낸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이미 내가 의도 하지 않았던, 그리고 전혀 수긍할 수 없는 누군가가 되어 사람들 사이에서 별 의미도 없이 허허실실 웃음의 장단을 맞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전략을 짜내고 부대끼고, 그러다가 어느새 첫 만남의 그 공간들을 벗어나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과연 이런 것들을 만남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혹은 즐거운 만남들이었을까.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나의 모습은 내가 가진 것들 만에 의해서 결정지워 지는 것도 아니다. 나를 비추는 타인의 규정들에 의해서 결정지워 지는 것도 아니다. 그런 식으로 서로를 만나게 되는 관계라면, 그건 서로를 성장시키는, 서로를 더 좋게 하는 만남이 아니라, 피곤한 만남일 뿐이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자연스럽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인정받고, 관계 속에서 이런 '나'들을 주고 받으면서 서로 스미고, 그것이 즐거운. 이런 것이 '좋은 관계'일텐데, 3월의 대학의 공기는 그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아니, 3월 뿐만이 아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무수한 이성애 연애들 속에서, 너와 내가 아닌 친구에 회자되는 '여자'와 '남자'의 역할에 갇혀진 채로 서로를 대하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고, 그 갇힌 관계에 대한 답답함들은 서로에게 소통되지 못하고 무수한 낙서로 화장실 벽을 채우기 마련이다. 과/반과 동아리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경험이 소통되지 못하는 데에 답답함을 느낀 여자친구들, 장애인, 성소수자들이 하나 둘 사라져서 자신들만의 커뮤니티를 찾아가는 상황이 반복된다.

좋은 관계, 말이 쉽지,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자연스럽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인정받고, 관계 속에서 이런 '나'들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스미고 있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서로를 규정짓지 않은 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 노력은 일상의 관계 속에 스며있는 권력에 대한 성찰을 반드시 동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잘 들을 줄 아는 능력'일 것이다.

특히 자신의 삶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조차 어려운, 소위 '일반적'인 담론들 속에서 자신을 설명할 수 없는 소수자들의 말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겠다', '이해할 수 없다'는 핑계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아니 아예, 말할 수 있는 공간조차 열려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익숙한 술자리 문화나 과/반의 언어 습관들을 폭력으로 경험한 이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드러내고 이해시킴으로서 더 '좋은 관계'를 얻기 위해 만들어진 '새터'와 '성폭력 내규'가 아무것도 아닌, 그저 새터 기간에 방에 붙이는 포스터 한 장쯤으로 여겨지는 분위기, 심지어 희화화되어 버리는 분위기가 '일반적인' 이곳에서는 말이다. **by. dust**



by. dust 첫 만남을 주제로 이번주엔 이야기들을 풀어 내다 보니 조금은 장황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아 아쉽지만, 이제 시작이니... 앞으로 이 지면에서는 일상에서 겪고 생각한 관계맺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구체적인 경험의 언어들로 풀어낼 예정이다. 말하기는 나에게서 일어나는 일하면서 동시에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것이 여성주의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 일상 속의 존재들에 대한 성찰에 어울리는 말하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막상 이렇게 달랑 내 문으로 주어진 백지를 받아들고 보니 난감하다. 나의 경험에 기반한 글쓰기. 그러나 '나'로만 그치지 않는 글쓰기를 드러내되, 나를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닌, 나를 드러냄으로서 너를 불러내고 만날 수 있는 글쓰기 따위를 할 수 있다면 좋겠다. 는 별로 자신감 없는 바람만 우선 가진 채로, 이렇게 일단은 시작해본다. (언젠가 부족한 나에게 우선 시작해보는 것이 가장 유의미한 일일테니) 그러나 이런 조바심은 나 혼자만의 몫은 아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이 나의 말하기에, 혹은 고백에서 시작하는 어떤 말하기에도 닫혀진 사람이라면 이 글은 반 토막만 채워 부실할 뿐일 테니까.

덧붙여서, 한 가지 광고. 같이 놀아도 즐겁고, 공부해도 즐겁고, 투쟁해도 즐거운 여성주의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은 dustsong@naver.com으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딱 그 만큼의 아쉬움] 말아톤



내게는 자폐증을 가진 사촌 동생이 있다.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 잠시 만나는 그 아이는 매번 모든 사람들의 주 화제가 된다. 전혀 말을 하지 않는, 손뼉치며 소리지르며 돌아다니는 그 아이에 대한 걱정과 그 가족에 대한 동정으로 일관된 분위기는 친척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익숙한 풍경이 된지 오래다. 동물원 구경하듯 모여서 혀를 차며 동정하는 사람들 한 가운데에서 아랑곳하지 않는 친척 동생을 보면서(그는 마치 같은 공간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 같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나는 자신과 친척동생을 이분화하는 그 사람들의 시선을 비웃곤 했다. 그러다가도 고기 냄새를 맡고는 허겁지겁 달려들어 먹으려 때쓰는(친척동생은 불고기 킬리다) 그 모습에 접시를 빼앗고 싶을 만치 미운 감정을 갖기도 했다. 그 땐 그 아이를 타인에 대한 배려란 조금도 갖지 못한, 통제력 없는 욕망만 남은 존재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나의 위선적 태도를 정당화했었다. 사실 무엇을 '유난히' 좋아

하고 싫어함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를 그런 일에 내가 그런 유치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부끄럽지만, 그 땐 그랬다. 그렇게 동정도 아닌, 그렇다고 이해의 시선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에서 나는 친척동생과 10년을 지내왔다.

서두가 길어졌지만, 내게 영화 말아톤은 그런 사촌동생과의 관계 연장선상에서 다가오는 것이었다. 물론 자폐란 증상이 하나부터 열까지 같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영화를 보면서 사촌 동생이 머리에 자꾸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런 내가 말아톤을 보면서 많은 불편함을 갖지 않고 볼 수 있었던 것은 자폐를 가진 사람에 대한 동정이 아닌 그냥 한 사람을 이해하고 다가가고자 하는 카메라의 따뜻한 시선 때문이었다. 서로 다른 삶의 패턴과 습관 때문에 빚어진 오해와 이해의 과정을 보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 소통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내가 영화 말아톤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소통, 그 어려움'에 관한 것 이외에도, 삶 그 자체에 적응하며 사는 것에 관한 불만 섞인 의문들이었다. 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전에 세상에 적응하며 사는 그 자체에 관한 질문을 회피한 채 사는 요즘, 영화를 보면서 삶에 무뎌진 내 삶의 일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없었다. 더욱이 촌각을 다투는 만남과 스침으로 점철된 작금의 삶에서 말이다.

내가 영화 말아톤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소통, 그 어려움'에 관한 것 이외에도, 삶 그 자체에 적응하며 사는 것에 관한 불만 섞인 의문들이었다. 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전에 세상에 적응하며 사는 그 자체에 관한 질문을 회피한 채 사는 요즘, 영화를 보면서 삶에 무뎌진 내 삶의 일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마라톤을 그만둔 초원이 일렬로 늘어선 작업대 앞 사람들에게 섞여 부품 끼워 맞추는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정한 나이가 들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 수 없단 지령과도 같은 현실의 가혹함에 쓸쓸했다. 그 때 초원의 그 뜬금없다는 표정처럼, 사회에 적응한다는 것이란 무엇이며, 그것은 또한 얼마나 이상스런 일인가? (물론 초원은 그런 현실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마라톤 완주에 성공하지만 말이다.)

영화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기도 전에 사회에 적응하는 해야 한다는 '법칙'을 깨닫는 구린 삶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딱 절반씩의 감동과 씁쓸함을 가져다 준다고 말하면 너무 노골적인 평일까? 그래도 어쨌든 나는 영화를 보는 내내 울었고, 근래 본 한국 영화 중 드물게 감동적인 영화라는 생각을 했었다.

영화가 감동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그것이 단순히 한 장애인의 성공담이기 때문이 아니다. 마라톤을 완주하기까지 주인공 초원이 느끼는 감정들을 포착해 내는 그 지점에 감동이 있었다. 다시 말해 손을 스쳐 지나가는 갈대의 부드러움, 온몸으로 느껴지는 공기, 빗방울 하나 하나가 중요한 그런 영화이기 때문이다. 온몸으로 느끼는 것의 소

말아톤

5살 지능의 20살 청년,
나는 달릴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나는 달릴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중함을 놓치지 않는 영화들엔 언제나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손길이 느껴진다. 함께 호흡하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그 감동이 배가 되는 것이 아닐까? 어차피 영화란 사람이 만드는 것이며,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들은 정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머니와 자식간 관계를 다룬 많은 영화들이 그렇듯, 철저한 모성으로 둘러싸인 어머니의 등장은 이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주 모티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내게 이 영화가 감동적이었던, 그 감동은 자폐아인 자식에 대한 끊임없는 보살핌을 베푸는 어머니 때문이 아닌, 자식에 대한 자신의 잘못된 방식의 집착과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바로 그 지점에 있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전 인생을 거는 사랑이 아닌,





자식을 놓아 주어야 함을 깨닫게 되는 그 곳에 갈등의 실마리를 두고 있다는 것은 분명 기존의 모성 내러티브와는 다른 종류의 것이다. (그것은 마치 어머니의 자식 사랑에 최정점인 듯 '보이는' <어둠속의 댄서>에서의 쥐어짜낸 눈물과는 다른 종류의 감동이 아닐까?) 누군가가 그랬듯 감정이란 것도 발명되고 개발되는 것이라면, (말아톤에서 발견되듯이) 놓아줄 수 있는 사랑에서 우리는 모성에 대한 다른 이야기들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보았다.

잘 만들어진 대중 영화를 보는 것은 감동적이지만, 그 감동이 현실을 추동할 만큼의 힘은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이제까지 흘린 눈물에 대한 주책없음을 상기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어쩔 땐 내게 대중 영화를 보는 것은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영화를 보는 내내 주체 없이 흐르는 눈물이 자못 의심스러워졌을 때, 즉, 무언가에 대한 눈물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된 시점은 영화 마지막 초원이, 아니 '배우' 조승우가 짓는 해맑은 미소 때문이었다. 내 친구의 감상처럼 나 역시 그 미소에서 '미안하지만, 이거 영화거든.' 이라고 넌지시 알려주는 영화와 현실 사이 벽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 미소를 보고 배우의 탁월한 연기와 감독의 연출력에 감탄하면서 돌아갔을 것이다. (나 역시 그랬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영화란 언제까지나 영화라는 것을 깨닫는 아쉬운 순간이 아닐까?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번 설에 만난 내 친척동생과의 소통은 영화 속처럼 성공적이지는 않았다. 단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내 방식대로 그 아이를 정의 내리지 않는다는 것과 소통 그 자체에 대해서 묻게 된 것 정도. 영화 말아톤이 내게 준 것은



'살이 영화와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란 의미없는 푸념을 늘어 놓지는 않겠지만, 그런 영화적 삶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묻게 될 때는 조금 괴롭다. 결국 이 이야기를 보고 울고 웃고 한 사람은 정작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닌 제 3자인 사실이 말이다.

나 자신에 대한 그 정도의 거리를 갖게 해준 것이고 이 정도면 성공적인 영화라고 할 수 있을까?

'살이 영화와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란 의미없는 푸념을 늘어 놓지는 않겠지만, 그런 영화적 삶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묻게 될 때는 조금 괴롭다. 결국 이 이야기를 보고 울고 웃고 한 사람은 정작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닌 제 3자인 사실이 말이다. 이러한 아이러니는 영화가 안고 있는 숙명이라고 간단명료하게 정의 내리는 사람들에게는 쓸데없는 물음일지도 모르겠지만, 영화가 단지 영화로만 남지 않기를 바라는 나 같은 사람에게 그 질문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이런 내게 영화 말아톤은 '딱 그 만큼' 아쉬움이 남는 영화다. **김민준**

by 모란

수많은 그녀들의 목소리, 여러분이 채워주세요. femispace.cyworld.com 수많은 그녀들의 목소리, 여러분이 채워주세요.

여자만의 방

femispace.cyworld.com



내가 여성이라서 느끼는
수많은 경험들과
감정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힘겨워서
용기가 잘 나지 않는,
그래서 입 밖으로 꺼내놓기
힘들지도 모르는 감정들과
혼란들을 나누어 봐요.
물론, 너무 기분 좋아서
여기저기 그 기쁨을
흘려 주려하는
그녀들의 웃음도
여지만의 방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녀들의 목소리,
여러분이 채워주세요.
femispace.cyworld.com

본지의 생각과 전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늘, 맘대로 와작와작 미디어 씹기

welcome to this page!!

.....:: 시작부터 저게 뭐래?: 라면서, be happy를 배개라고 해석하는 미친소 선생님 처다보듯 이 페이지를 바라보고 있을 몇몇 분들의 모습이 선하다. 뭐, 너무 당황해하실 거 없다, 저건 말 그대로 인사니까, 좀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표지를 넘겨, 차례를 건너, 기획 혹은 특집글과 다른 고정 코너들을 거쳐 드디어!!! 이 페이지에 당도한 모든 분들에게 진심을 가득 담아 건네는 환영의 표현이라고나 할까.....그러니 여러분은 느긋한 마음과 여유로운 표정으로, 저 인사를 받아 주시면 되겠다(구구절절 쓰고 나니 참으로 궁색하군...::). 어쨌든간 이정도면 첫인사로는 충분한 듯 싶으니,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나. 사실 본문이라고 해봤자 오늘은 간단단단(...과연 정말로 간단할 수 있을까?) 소개 정도가 되겠지만 말이다.

지금 나의 인사를 받아주신 분들 중에는 2004년의 She Said를(어쩌면 2003년의 Daydream도) 재미있게 읽었고, 2005년에도 것처럼 즐거이 읽을 수 있는 무언가가 켜! 하고 나타나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차에 이 잡지를 발견하고 반가운 마음으로 페이지를 넘기고 계신 분들이 분명 있으리라 믿는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이 코너의 제목을 슬쩍 보는 것만으로 이미 '호음, 애가 이런이런 소리를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대강 감을 잡으셨으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이분들께는 첫 회의 이 글이 조금은 지루하실 거라고 추측한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 입학한지 얼마 되지 않아 뭐든 쌓여만 있으면 그저 신기한 마음에 집어들다보니-심지어 애널스까지도!-우연히 이 잡지가 섞여들어와 버렸다는 분들, 쌓여있는 모든 것에 고루 눈길을 주지는 않지만 이젠 좀 재미있을 것 같은 뉘앙스가 와서 시험삼아 집어들어 본 분들, 친구따라 언니따라 오빠따라 연세대학교에 놀러 왔다가 '웃, 이젠 혹시 대학생들의 교양 배양을 위한 안내서?' 하는 생각으로 가방 속에 이 잡지를 쑥 넣으신 분들이 결코 없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개하자면-여기는 제목 그대로 미디어를 씹는 코너다. 그것도 귀엽게 오물오물 씹는 게 아니고 와작와작 씹는다. 허, 좀 무섭죠? 게다가 늘, 맘대로 씹을 것이다. 뭐야, 완전 지멋대로 하겠다는 거잖아? 뭐 이래? 하고 궁시령(?)대는 분이 꽤 있을텐데...그에 대한 변명을 좀 하자면...(웃, 계속 궁색하다...::)

물론 좀 고상하게 미디어 비평, 뭐 이런 이름을 붙여놓을 수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비평이라는 이름을 가진 글들

을 읽다 보면 꽤 많은 수의 글에서 쓰잘데없이 나타나는 어려운 말들, 지나치게 이론적이거나 확률적이라고 느껴지는 접근 방식, 결국은 글쓴이의 의견에 불과(?)한 하나의 주관을 마치 정당처럼 내세우는 암묵적 권위 등을 비교적 자주 만날 수 있다. 예네들로 인해 읽는 이들은 괜히 골치아파지고, 어리둥절해지고, 이해가 잘 되지 않음을 자신의 무지 혹은 무식 때문이라 여기며 통탄하기까지 한다. 사실 그럴 필요 없는데.

나는 그러한 상황이 도래하는 것을 매우 반기지 않을 뿐더러, 굳이 비평이라는 말을 씹으로써 '옥, 웬지 어려운 것 같은데...이건 좀 넘어가볼까?'라며 페이지를 넘기게 되는 부담감과 거부감을 드리고 싶지 않다. 좀 가볍고 재미있게, 하지만 할 말은 꼭 하면서 일년간 미디어에서 생산되는 이런저런 것들-뭐, 온갖 온라인 오프라인 매체들을 두루 왔다갔다한다고 보시면 된다-에 대해서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유롭게 떠들고 싶은 것이다. 편집권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나 할까. 잘랄.

하지만 한 가지 원칙은 분명히 있다. 바로 여성주의적으로 미디어를 읽으려고 노력한다는 것. 늘, 맘대로 씹기라고 해서 정말 맘대로 아무거나 씹지는 않는다는 거다. 씹힘의 대상은 여성의 일, 여성의 꿈, 여성의 목소리, 여성의 삶, 그리고 여성을 행복하게 하고 여성임을 행복하게 받아들이게 해 주는 힘으로서의 여성주의에 대하여 아무런 고민도 생각도 관심도 없이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아, 왜 그러시나. 신문이나 tv를 보다가, 혹은 인터넷에서 뉴스를 클릭하다가 대뇌의 감각 중추에서 강하게 일어나는 짜증스러움을 느끼고 '아 뭐 이래~!'라고 투덜거리 본 기억, 한번쯤은 다 있지 않은가. 특히나 요즘같이 너도 나도 매체라는 이름을 달고 뛰어나오는 때에는 어딜 봐서 뉴스야? 싶은 것들이 뿔뿔히 뉴스랍시고 나와서 사람 속을 활활활 뒤집어 놓는다. 호주제 헌법 불일치 판결이 떨어지자 '이러면 우리의 소중한 대가족문화가 없어지고 전통 문

화가 붕괴돼! 이제 우리는 모든 사회적 네트워크가 상실할 위기에 직면하게 된 거라고T.T'라며 오바하는 분, 성매매방지법으로 인해 우리의 위스키업계가 불황을 맞았다며 별 곳에 다 측은지심을 느끼는 분, 인간 사회에는 불가피하게 신분이 있으며 각 사람들이 처한 환경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등이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남녀평등 혹은 양성평등도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뻔뻔하게 지적하는 분, 간통죄 폐지 얘기를 하면서 동성연애(?)를 저지른 '성종속사범'은 형사처벌 안하면서 왜 간통만 처벌하냐고 씩씩거리는 분 등등...세상엔 참 별의별 분들이 다 계신다, 쏙.

사실 좀 고민스럽다. 지난해 She Said를 통해 비슷한 코너를 연재했던 경험이 있는 탓에 이런저런 걱정들이 스멀스멀 머리카락 사이를 기어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더 과격하고 씩씩하면서도 신선하고 재미있게 글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혹시라도 매너리즘에 빠져 예전의 코너와 아무 차이없이 비슷비슷한 꼴(이면 차라리 낫지, 오히려 더 못하면...-::;)이 되어 버리면 어쩌나 등등.

하지만 뭐, 결론은 늘 똑같다. 독침을 좀더 날카롭게 갈아놓고, 촉각을 바짝 곤두세우고, 주위를 열심히 두리번거리며, 더 많이 고민하고 고민하고 고민할 수밖에. 으흐흐, 아무리 찾아보고 찾아보아도 씹을 얘기가 하나도 없어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은 도저히 씹을 게 없어서 청찬을 해야겠는데요?'라며 머쓱해하는, 참으로 놀랄만한 상황이 일년에 딱 한번이라도 생겼으면 하는 바람을 슬쩍 가져보면서, 오늘은 이만~)//

by 늘 (우리는 '살아 있어도' 관찰야요)



우리가 자매애를 생각하는 이유 <NANA>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어요 (^-^)

처음 만나 뵙는 사이에 어떤 작품과 함께 어떤 인사로 먼저 말을 걸어야 할지 한참을 고민하다 <NANA> (아자와 아이작)를 꺼내어 들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시리즈 누계 판매량 1200부를 돌파했다고도 하고, 한국에서도 여기저기 순위의 상위권에 있다고도 하니 제법 유명한 작품인 모양입니다.

사실 이 작가가 여성주의적 고민이 그리 깊게 녹아 있는 작가는 아닌지라, 화려한 그림체하며 비밀스러운 소재 등은 일본 순정만화의 패턴과 그다지 달라 보이지 않긴 합니다만 아자와 아이의 매력은 단연, 그녀가 그려내는 여성의 삶에 있지 않나 합니다. <NANA>가, 결코 가볍지만은 않은 터치로 20대 여성의 불안정한 삶과 내면 심리를 묘사하면서 그 해답의 하나로 '자매애'를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요.

<NANA>의 스토리를 구성하는 한 축인 여성 '고마츠 나나'.

여타 순정만화에 흔하게 등장하는 소녀형 캐릭터입니다. '내 꿈은 가정주부!'라고 자신 있게 외친다든지, 참 보는 남성에게 한눈에 반하기 전수예다가, 남자친구와 같은 도시에 살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아무 대책 없이 상경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설계나 꿈은 전혀 없이 환상만을 안고 살아가는 이 소녀는 남성 중심의 사회가 인정하는 귀여운 소녀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이 '귀여운 소녀'의 판타지를 깨버리는 묘한 리얼리티는 너무나 현실적으로 그려진 몇 개의 에피소드로 인해 나타난다고 할까요. 고마츠 나나가 만난 남자들? 결혼한 남

성 동갑내기 친구와의 사랑은 1년도 채 못 가 간단히 깨집니다. 아무리 소녀의 판타지가 연애를 깨버렸음이 뻔히 보이는 에피소드일지라도, 보통의 순정만화에서라면 남성 캐릭터가 날라리 바람둥이라서 연애가 끝난 거라고 얼버무리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NANA>에서의 이 두 남성 캐릭터는 우리 주변에서 아슬아슬거리는 그저 평범한 20대 남성일 뿐입니다. 연애는 너무나도 아프게 끝났지만, 그 연애의 주인공 중 누구도 악역은 아니었던 거죠. 연애라는 관계는 '완벽한 사랑'의 환상귀여운 소녀에게 기대되는, 그리고 귀여운 소녀가 갖고 있음직함이 아니라 그저 관계에 불과하다는 것, 서로의 관계맺음이 빠격거리기 때문에 현실의 연애는 금방 부서진다는 것을 너무나 현실적으로 보여줍니다. 연애가 끝난 후, 몇 달을 눈물로 지새우는 게 아니라 곧 새로운 남성을 찾아나서는 나나의 모습 또한, 사실 누구나 다 그래,라며 씁쓸한 공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구요.

현실에서라면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는 책임의 문제 또한 판타지를 깨버리는 또 다른 요인으로 등장합니다. 가정주부라는 나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딱 적합한 남자가 나나의 앞에 등장하고 나나는 또 사랑에 빠집니다. 그치만 이전 남자와의 관계를 굉장히 안이하게 생각했던 나나는 그 남자



이런 때에 자매애는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어디에도 이야기되지 않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기대어서 불안정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자매애입니다.

의 아이를 가져버리게 되고, 결국 새로운 관계도 파장에 이르게 됩니다. 연애는 단순히 달콤한 것이 아니라는 것, 섹스는 그저 달콤하지만은 않은 것이라는 걸 너무나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에피소드랄까요.

현재 연재되고 있는 부분에서 그 '이전 남자'와의 악혼을 통해 처음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고마츠 나나지만, 이것 역시 실은 무책임하고 권위적인 남자에게 나나가 환상을 덧씌웠을 뿐 판타지가 실현된 게 아니라는 걸 구구절절 보여주죠. 아마 이 안정된 상태도 조만간 깨어지고 말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을 독자에게 안깁니다.

<NANA>의 스토리를 구성하는 나머지 한 축은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여성 '오사키 나나'입니다. 일반 순정만화에서 등장할 만한 캐릭터는 아니라서 처음 보는 사람에겐 신선한 충격을, 사나이 싸움에겐 분노감을 갖다 줄 법도 합니다.

뭐가 다르냐하면, 어릴 적 상처가 자신을 더욱 의존적으로 만드는 데에 기여하고 있는 일반 소녀형 캐릭터와는 달리, 오사키 나나는 어릴 적 상처 때문에 명에 남성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거든요. 말하자면 나나는 어릴 적의 상처 때문에 동정 받는 것을 혐오합니다. 어릴 때의 상처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타인에게 동정을 구하는 행위라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그러한 얘기는 않고, 늘 타인 앞에서는 당당한 모습을 보이려 합니다.

그러나 명에남성도 여성의 삶에 있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건 오사키 나나에 대한 여러 차례의 에피소드를 통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좋은 건 아냐, 같은 빛 속에 있고 싶었어.
나는 이 손을 이대로 영원히 놓고 싶지 않아.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알아줄까.

(고마츠 나나에 대한 오사키 나나의 독백)

아무래도 명에남성으로서의 성격을 지나다보니 오사키 나나의 태도만은 참 당당합니다. 전혀 외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당당한 척 보이지만 사실, 독백을 통해 드러나는 그녀의 감정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외롭습니다. 고마츠 나나가 아이를 갖고 결혼을 꿈꾸며 자신에게서 멀어지자, 오사키 나나는 심지어는 과호흡⁹ 증상까지도 보이니까요. 그녀는 남성에게 대한

집착이나 일의 성공에 대한 확신을 통해 그 불안정을 해소하려고는 하지만, 글썽요. 남성과 함께 있어도, 일이 성공해도 달리고 있어도 여전히 불안정한 그녀의 모습을 볼 때, 그 방법으로 불안정이 해소가 될지 안 될지에 관련한 불안 또한 독자들에게 안깁니다.

아자와 아이는 이런 두 여성의 삶에 대하여 자매애를 통한 해결을 제시합니다. 두 여성은 서로에게 기대어 있을 때만 가장 안정되어 보이고, 서로가 서로를 기대지 못하고 타 남성에게 기대어 있을 때는 가장 불안정해 보이거든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20대 여성이란 불안정하기 그지없는 존재입니다. 명에 남성으로 존재하든가, 최대한 귀여운 소녀로 남아있든가 하지 않으면 사회의 중심에 존재하는 사나이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채우기 힘들기 때문이죠. 게다가 남성의 경험과는 달리, 여성의 불안정한 경험은 공공연히 이야기되지 않기 때문에 여성은 스스로의 불안정한 감정을 어디다 기대야 할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공유할만한 경험 자체가 없다시피 한 남성에게는 더욱더 기대기가 힘들 것이구요.

이런 때에 자매애는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어디에도 이야기되지 않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기대어서 불안정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자매애입니다. <NANA>에서는 같은 이유로 고마츠 나나와 오사키 나나는 서로에게 기대입니다. 불안정하고 외로운 존재일 수밖에 없는 20대 여성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은 연애도 아니고 일도 아니며 그저 서로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여성의 존재라는 걸 <NANA>는 너무나 사실화된 이야기를 통해 드러냅니다.

자면 관계도 있고 하니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기로 하죠. 어떠셨나요? 처음 만나 뵙는데 이야기가 어색하거나 딱딱하지는 않으셨는지...?

만화로 풀어내는 얘기 따위가 너무도 딱딱하게 시작하지는 않았나 하는 참 미안한 마음을 먼저 가지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할죠. 좋은 하루들 되세요. **충충**



by_ 자매 동인계의 별★이 뽀빠 합니다(웃음)

⁹ 과다하게 호흡을 하여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호흡을 깊게 하는 병리현상. 이 경우 환자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일어난다.

우리들의 오펔리아

우리 사회는 '소녀'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다. '여고생, 여중생'이라는 성별화된, 그리고 성애화 되어가는 명명에서부터 '원조고제'에 대한 무수한 담론까지. 하지만 그 속에 '소녀'는 없다. '소녀들의 이야기'는 듣기가 참 어렵다. <우리들의 오펔리아 - 원제는 ophelia's speaks>를 만나고 가장 반가웠던 것은 '소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소녀의'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소녀들은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다. 악함과 강함, 슬픔과 기쁨, 즐거움과 고통이 섞여 짜여진 복잡한 무늬를 만들어 내고 있다. 그리고 그 글들은 자연스럽게 그리 멀지 않은 나의 과거와 나를 또 다시 만나게 해준다.



이제까지 내가 생각한 '오펔리아'는 '동화 속 공주님'의 다른 버전에 불과했다. 아버지와 연인에게 충성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창백한 얼굴로 두 손 꼭 모으고 강물을 떠내려가며 죽는 '비극의 여주인공'일 뿐이었다. 자신의 욕구나 의지 따위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저 절고 아름다운 인형 같은.

이 오펔리아를 10대 소녀들의 경험과 연결 시켜서 쓴 책이 <오펔리아의 회생>이라고 한다. 소녀들의 경험을 섬세하고 분석하고, 서술하지만, 정작 이 책을 읽은 소녀들은 불안해했다. 자신들의 모습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오펔리아를 변호하고 싶어진 것이다. 이 책의 큰 기획은 오펔리아로 명명되는 그녀들이 스스로 오펔리아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인 사라 샌들러는 16살에 <오펔리아의 회생>을 읽고 <ophelia's speaks>라는 책을 기획하게 되었다. 오펔리아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과 같은 10대 소녀들이 솔직한 경험을 듣고 모아서 말해야 한다

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의도로 모아진 800편의 글들을 바탕으로 구성이 되었다. 그리고 이 글들 사이사이에서 오펔리아는 말한다.

더 이상 오펔리아는 이해되어져야하고 설명해야만 하는 대상이 아닌, 살아 숨 쉬고 움직이며 말하는 존재로 내 앞에 나타난다.

10대 소녀들이 얼마나 미디어의 영향에서 고통받고 있는지, 거식증과 다이어트, 성적인 경험과 폭력들, 다양한 성 정체성과 욕망들, 친밀한 관계들 사이의 문제, 그리고 학교생활, 그리고 그녀들이 어떻게 폐미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을 자신의 영역으로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타인에 의해, 사회에 의해, 가부장적 질서에 의해서 규정된 내가 아닌, 그것에 결정되고 순응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반발하고 새롭게 움직이고 변화하는 나를 만들어 나가는 시작이다.

니스트로 자신을 정체화하며 살아가고자 하는지가 배곡하게 쓰여 있다. 자신의 경험을 시로서 에세이로서 표현한 각각의 글들은 매우 다양하다.

어떠한 글들은 매우 담담하게, 또 다른 글은 시니컬하게, 또는 매우 격렬하게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지 않고 자신을 드러낸다. 그리고 자신을 말한다. 여러 인종과 지역,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소녀들의 각각의 위치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 소녀들은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다. 악함과 강함, 슬픔과 기쁨, 즐거움과 고통이 섞여 짜여진 복잡한 무늬를 만들어 내고 있다. 그리고 그 글들은 자연스럽게 그리 멀지 않은 나의 과거와 나를 또 다시 만나게 해준다.

그 애매한 감정들, 그리고 모든 게 '혼란'이라고 정의해버리고 싶은 시간들, 가족이라는 갑갑한 돌레 혹은 보호막, 엄마가 죽어도 나는 절대 슬퍼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던 화장실 구석, 모든 것을 함께 했던 친구, 반복되는 일상 속의 학교, 소각장에서 애들 영당을 만지던 수위 아저씨, 체육복 바지를 교복 치마 밑에 입고 2층에서 뛰어 내리고 교문 담벼락을 뛰어 내리던 그 패기와 열정! 시험과 성적, 그 냉정한 결과들과 나를 바라보는 시선, 담배와 술, 그리고 노래방, 당구장, 모든 것들이 나에게 열려 있었고, 그리고 허락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사실 지긋지긋하게 싫었던 것은 내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나는 말을 할 곳이 없었다. 나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다. 이미 10대에 나는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경험하였다. 하지만 나의 말은 이해되

지 못했다. 아니 말해지지 못했다.

'우리들의 오펔리아'를 처음 접하면서 '감동'적이었던 것은, 그녀들은 나와 너무도 같았고, 그리고 또한 너무도 다르게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럽다 못해 질투가 났다. 처음 책을 만들겠다고 결심했을 때, 그것을 격려해주고 도와주려하는 부모님들과 '문학과 여성' 과목 선생님이 있다는 사실이 부러웠다. 내가 시도조차 혹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을 해냈다는 것이 너무 부러웠다.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을 자신의 영역으로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타인에 의해, 사회에 의해, 가부장적 질서에 의해서 규정된 내가 아닌, 그것에 결정되고 순응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반발하고 새롭게 움직이고 변화하는 나를 만들어 나가는 시작이다.

그렇게 그녀들은 말을 한다.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이야기를 말한다.

이야기하는 주체로서 그녀들은 더 이상 쉽게 상처받기 쉬운, 그래서 보호받아야 하는 동시에 욕망의 대상으로서 점철되고 있는 '소녀'가 아니다. 성인과 아이가 아닌 어정쩡한, 그래서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 '과도기'로서의 모습이 아닌, 그 자체 소녀의 정체성과 소녀의 욕망, 그리고 소녀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을 누구도 읽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글을 쓰는 동안 치유가 이루어졌다고 고백한다. 조금이라도 말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들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그리고 말해야 한다고 지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 더 소녀들은 스스로를 긍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녀들에 의해서 오펔리아는 살아났다. 아니 사실 처음부터 죽지 않았었다.

by. 여람 명랑한페미니스트

사실 말이야 어려워 그렇지, 물어쓰자면 어떤 새로운 환경에 떨어졌더라도 나의 이야기를 경청해줄 여자친구를 만나거나, 혹은 그와 같은 감수성을 가진 동료들의 커뮤니티를 구성하자는 얘기가.

무슨 얘기로 글을 열어야 할지 괴로운 심정으로 머리를 쥐어뜯다가, 마감의 압박에 피폐해진 마음으로 몇 단락을 쓰고 또 지우기를 여러 번. 오랜만에 맞는 휴일에 하얀 "빈문서"를 30분 내내 독대하고 있자니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심정으로 솔직한 글을 쓰리라 마음 먹는다.

실은 "고동, 고정템을 맡아주세요!"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나는 내심 흐뭇하고도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써주겠노라며 덩석 원고 청탁을 물어버렸다. 게다가 졸업한 여성주의자의 일상다반사를 써달라는 반갑기까지 한 주제라니. 이거야 문제없겠다 싶은 마음에 몇 주가 흘렀다.

그러나 기말고사를 마치고 실질적으로 졸업 이후나 마찬가지인 지금까지의 삶은 예상 외로 그리 녹록치 않은 것이었다. 글로 풀어낼 일상의 소소한 사건들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것보다는, 여성주의자의 시선으로 나의 일상을 차근차근 풀어낼 수 있게끔 했던 감수성이 아주 빠른 속도로 다른 환경의 새로운 공기에 의해 풍화되었거나 혹은 내밀한 곳으로 도망가 있었던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이었을까.

학교를 졸업하고 원하던 일을 드디어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서 근심걱정이 가시지 않았던 나를 단번에 알아보았던 또 다른 여성주의자 친구와 수다를 떨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나의 감수성과 여성주의자로서의 삶은 나 자신이 전공인 상태에서 고민하고 혼잣말하면서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이였다. 직장 다니면서 뭔가 답답하게만 느껴졌던 2%의 부족분은 네이버에 물어봐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책을 들여다보며 배워서 완성되는 것도 아닌, 소통을 통해서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이다.

예전에는 자극을 주면서 나의 고민에 시너지를 불러일으켰던 친구들이 "질적인" 의미에서 무척 풍족한 커뮤니티에 상주했던 것에 비해, 지금은 직장에서 답답한 뿔소리들을 웅대하며 허덕이고 있자니 꽤나 껄껄한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나는 아주 차근차근 살아나갈 틈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서바이벌 가이드를 열며 소개할 "준거집단을 만들자!"다. 사실 말이야 어려워 그렇지, 물어쓰자면 어떤 새로운 환경에 떨어졌더라도 나의 이야기를 경청해줄 여자친구를 만나거나, 혹은 그와 같은 감수성을 가진 동료들의 커뮤니티를 구성하자는 얘기가.

어느
성주의자의
좌충우돌
서바이벌
가이드

Ch.1 여성주의자로 살아남는 법 - 준거집단을 만들자!



현재 인턴이라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안정한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는 나에게 직장 내 유일한 위안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나와 비슷한 처지의 여자 인턴 7명이다. 전혀 다른 환경과 배경에서 성장한 우리들이 특히 한꺼번에 모이는 구심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남자 팀장 씹기"이다. 약간 독불장군 끼를 지닌 데다 때로는 모질기 그지없는 그가 사무실을 잠깐 비우면 질세라 입을 모아 팀장의 모순어린 면면들을 지적하고 비꼬며 정제되어있던 하루의 끝에 짜릿한 힘을 풀어내는 여자 인턴들을 볼 때마다, 적어도 나는 비실비실한 일주일의 5할 정도는 아들 때문에 지탱할 수 있겠구나 싶어 안도하곤 한다. 한 방향으로만 내딛는 사무실 내의 커뮤니케이션 구조도 이들과 함께하면 꽤나 수평적이고 다양한 방향을 유지할 수 있어 숨길 구멍도 생기는 듯 하다. 명절 휴가 때 뻘 빠지게 일해야 했던 고충이나 아싸 혹은 남자친구로부터 겪는 부당하고 억울한 일들에 이르기까지 소소하지만 많은 것들을 함의하고 있는 에피소드들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실은 매우 운 좋은 일이다. 순진한 얼굴로 깔깔거리고 웃곤 하는 그녀들을 처음 보았을 때 나는 다소 냉소적인 시선으로 그녀들을 평가했음을 시인한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나에게 지지기반을 형성해줄 이들은 팀장도 이사장도 아닌 내 바로 옆에서 열심히 문서를 작성하거나 커피를 타주며 수고하라는 말을 귀띔해주는 그녀들이며, 이들과의 네트워킹은 나에게 분명히 큰 자산이자 에너지가 된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하고 또 잊지 못할 점임에 분명하다.

여성들과의 네트워킹 혹은 커뮤니티 만들기는 가장 쉽게 느껴지지만 사실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그녀들은 균일한 집단이 아니며 그녀들이 지닌 다양한

충위의 경험들과 내러티브를 한 순간에 모두 속독해낼 수는 없고 또한 그래어도 안 될 노릇이다. 그것은 나를 포함한 모든 여성들에게 있어 비슷한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여자친구 만들기"가 간단해 보이면서도 그렇지 않고, 일상적인 작업인 듯 하나 때로는 정치적으로 무척이나 전략적인 의미를 지닌 것은 바로 이 점 때문이다. 후자는 젠더를 기준으로 지나치게 이분법적이고 기계적인 발상인 것은 아니나나는 혐의를 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나는 단순하게도 이렇게 반문하려 한다. "미스 김, 커피 타줘"라는 화석 같이 남은 주문이 의외로 무척이나 세련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직장 에서 커피를 타는 압박을 전혀 느끼지 않는 남자 직원과 정반대로 "손님한테 커피 좀 타들래요?"라는 "부탁"의 숨겨진 호명이 바로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만 같은 의심 때문에 항상 귀를 종긋 세우고 있는 여자 직원들 중에, 나의 고충을 진심으로 귀담아 들어줄 사람은 과연 누구일 것이냐고.

여자친구들을 많이 만들고 그들과 풍부한 소통의 기회를 자주 찾아내는 것은 언제나 중요한 일이다. 준거집단이 당신을 지지해주는 가운데 새로운 액션플랜을 짤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내재되어 있다면, 그만큼 힘이 되는 일이 또 어디 있을까 싶기도 하다. 그러므로 학교를 나와서도 계속 될 여성주의자로서의 삶은 그녀들과 어떠한 이야기를 어떻게 새로이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김민정**

by. 고동 문화기획자를 꿈꾸며 이종생활 중인 여성주의자. 착하게만 살지 않기 위해 온화한 미소 뒤에 오늘도 이를 악물다.

미묘 :
미묘는 이제 막 시작하는 연세대학교 여성주의 공동체의 이름입니다. 무슨 뜻인지 궁금하시죠?

미묘 하나.

未妙 : 아날 미 + 절은, 예를 미

우리가 말하는 「妙」는 네이버 한자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女(여자와) 少(작다)로 이루어진, 여자가 오묘조밀하게 아름답다는 뜻」의 「妙」가 아니다. 여성이 가지는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주변성 그 주변성의 묘한 힘이야말로 우리가 말하고 싶은 「妙」. 그래서 「未妙」는 불가능자리 미묘(묘할 묘)이다.

미묘 둘.

美妙 : 아름다울 미 + 묘할 묘

고정되어 있는 것 너무나도 선명한 경계를 가지고 자기가 아닌 것을 배척하는 선명함. 이런 것들은 전혀 아름답지 않다. 묘하고, 흔들리고, 그래서 늘 섞여들고 스미고 성장하는 묘함이야말로 아름다운 것이다.

미묘 셋.

彌妙 : 널리 미 + 묘할 묘

한국 최초의 가부장자인 단군 할아버지는 말씀하셨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하지만, 우리는 널리 인간을 묘하게 하리라.

미묘 넷.

靡繚 : 쓰러뜨릴 미 + 묘지 묘

이미 죽어있는, 그러나 우리가 발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곳 무덤 같은 가부장제를 쓰러뜨리자.

그리고...

謎猫 : 수수께끼 미 + 고양이 묘

무슨 뜻이냐고? 이제까지 늘어놓은 다양한 뜻들처럼 「미묘」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어디로든지 열려있다. 마치 수수께끼처럼, 나긋한 고양이의 몸짓처럼. 그 뜻이 언제나 새롭게 만들어지고 성장하는 공간. 당신이 함께 만들어갈 그 공간이 바로 「미묘」.



미묘가 준비하고 있는 몇 가지 계획들

「안녕?」 워크샵

시기 : 3월 2,3째주 어느날

회원 모집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 서로를 알아가기 위한 자리가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안녕?」 워크샵입니다. 출신지역/나이/성별의 틀 속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선배/후배라는 위치에 따라 존대/하대를 결정지으며 언어의 위계를 자연스럽게 만들고, 뒷물이 자리에서의 숨겨진 운을 빌어 구린 농담들을 섞어가며 친밀함을 얻기하는 기존의 「신입생 환영회류」의 자리들과 다른 자리로 이 워크샵을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 일단 서로의 색깔을 「맛」 보는 「내가 누구게?」 게임

- 아버지의 성만이 붙어있는 이름, 이름 뒤에는 꼭 뭔가 언니/선배 류의 호칭이 붙어야만 자연스러운 것 같은, 그 호칭에 따라 말의 위계도 결정지워지는 기존의 이름을 대신할 별명지으며 놀기등의 프로그램들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아름다운 나눔 장터」 봄 소풍

시기 : 3월 말이나 4월 초

봄기운이 간질간질할 이 시기 즈음에 소풍을 한 번 가주는 것이 도리어겠지요?^^

아름다운 나눔 장터는 「아름다운 재단」의 일원인 「아름다운 가게」에서 운영하는 장터입니다. 쓰지 않는 헌 물건, 묵혀두었던 새 물건을 버리지 말고 나누자는 「재사용 운동」의 장터이지요. 끊임없이 소비함으로써만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소비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른 생활의 감각들을 얻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나눔, 생산의 경험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사실 이렇게 거창하게 까지 이야기할 건 없구요. 아뭏든 이걸 봄 소풍입니다^^. 도서관도 써서 독성에서 하는 장터로 놀러가요.

아름다운 나눔 장터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www.flea1004.com에 둘러보세요.

세미나

같이 놀아도 즐겁고, 공부해도 즐겁고, 투쟁해도 즐거운 여성주의 공동체를 만들자고 하였으니 이 세가지를 구상하는 자리가 되어줄 세미나를 안 할 수가 없겠지요. 커리큘럼은 회원들이 모이면 서로의 관심사를 모아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여성학 입문 정도의 커리큘럼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미나에서 내 이야기를 편히 풀어놓고 너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따로/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봅시다.

여기까지가 당신에게 보여 드릴 미묘의 몇가지 모습입니다. 함께하고 싶으시다면요? dustsong@naver.com으로 메일주세요. 학생회관 3층 총여학생회실 안에 미묘가 세들어^^ 살고 있는 페미니티 방으로 놀러오셔도 된답니다.

